

전략연구 2015-09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연구

이상준 · 임형빈





# 발 간 사

전통시장은 발생 특성 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상품을 매개체로 사람 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상업공간이자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용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시장은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상업공간으로 한정되어 지역 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쇠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 내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야 할 장소라는 인식과 필요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능과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부로 적용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 필요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추진실태,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별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상준 책임연구원, 임형빈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태주신 전문가 분들과 충청남도청 관계관, 지방자치단체 담당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통시장은 입지적 유리함에 기초하여 상품을 매개체로 사람(소비자와 상인) 간 다양한 관계가 형성·유지되는 장소(혹은 시설)로, 상업적 공간이면서 커뮤니티의 장으로 복합적 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활발한 이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중앙부처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부의 문제해결을 통한 전통시장 커뮤니티 회복과 외부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낙후된 상업시설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범위 내에 전통시장의 커뮤니티 기능 회복 및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와야만 하는 필요 기능이나 시설(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2.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실태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사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통시장별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활성화 관련사업의 추진현황이다. 충청남도에서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해 2015년 기준 약 3,200억원(시장 당 평균 약 47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약 97.6%인 3,130억원이 시설현대화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51.2%인 1,641억원이 커뮤니티시설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주차장 및 진입

도로 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중앙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커뮤니티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올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장소(혹은 시설) 보다는 낙후된 상업시설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효율이 낮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이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은 총 68개로, 이들은 입지나 규모, 형태, 상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형분류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출된 전통시장의 “범위와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의 범위는 적용 대상인 커뮤니티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1차 생활권(소생활권, 5천명 이하), 2차 생활권(중생활권, 5천명 ~ 1만명 이하), 3차 생활권(대생활권, 1만명 이상)”으로 제시하였으며, 형태에 따라서는 “건물중심형, 골목중심형, 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2가지 분류기준을 활용한 교차분석을 통해,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3차 커뮤니티 범위에서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골목중심형과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전체 커뮤니티 범위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1차 커뮤니티 범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 범위가 전통시장의 형태와 활성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 제시될 필요가 있다.

### 3.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사례에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과 전통시장 유형별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출이다. 커뮤니티시설 중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속성(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시

설, 2. 전통시장 내 입지가능 시설, 3.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적용성 검토결과,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총 31개 시설(행정시설(1개), 공간시설(1개), 공공보건의료시설(4개), 보건의료시설(1개), 공공시설(3개), 교육시설(3개), 놀이휴게시설(1개), 문화여가관련시설(1개), 상업시설(6개), 위생시설(2개), 체육시설(1개), 공간시설(1개), 교통시설(1개), 문화시설(3개), 복지시설(1개))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기준이다.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시설별 설치규모와 입지에 대한 제약요건을 검토하여 적용을 위한 최소기준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청만이 아닌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T/F팀 구성, 가칭)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통시장 유형별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출이다. 전통시장 유형별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전통시장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의 범위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개발형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기준에 부합되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치형태와 개발형태에 따라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치형태에 따라서는 일원배치형태와 분산배치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며, 개발형태에 따라서는 건물형(개선형, 신축형), 비건물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시장 내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전통시장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 유형별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도출과 적용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 통합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연구 등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

를 위한 방안으로 1)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 관리기구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도 단위 센터 설립이나 위탁방식을 통해 구성한다. 2)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3) 지자체별 통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T/F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 활동의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1)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충청남도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2) 이를 위한 전통시장별 심층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품판매 특성과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접목한 융복합적 활성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충청남도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별 특성화, 전문화, 융복합화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 연구, 전통시장 관련 기구 설립·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자체예산(지자체 보조금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소비계층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 등 새로운 목적계층의 발굴·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시설·공간 제공, 이벤트 제공 등)과 이러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청남도 등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또한, 새로운 소비계층의 유입 방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내로 필요한 커뮤니티시설(공공시설)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전통시장 관련 부서가 참여한 T/F팀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혹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 혹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우선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통시장별 필요성 분석을 통해, 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전통시장 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문체부)은 전통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사례가 많은 시설로, 이 시설이 필요한 전통시장의 경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3. 연구의 수행절차 .....	5
제2장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의 관점 .....	6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6
2. 관련 정책의 추진동향 .....	21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사례 .....	25
4.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	32
제3장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실태 .....	34
1.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 .....	34
2.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및 특성분석 .....	46
3. 소결 .....	54
제4장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	56
1. 충청남도 전통시장 내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	56
2.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	64
3. 소결 .....	89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91
1. 요약 및 결론 .....	91
2. 정책제언 .....	93
3.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102
참 고 문 헌 .....	104

# 표 목 차

<표 2-1> 국내 전통시장 법적·제도적 변천 현황 .....	8
<표 2-2> 전통시장의 기능 변화 .....	9
<표 2-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11
<표 2-4>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방안 연구 .....	12
<표 2-5> 연구자별 커뮤니티 관련시설 유형 .....	15
<표 2-6> 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	16
<표 2-7>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	18
<표 2-8> 시설형태 및 규모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유형 .....	19
<표 2-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내역 .....	21
<표 2-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 .....	22
<표 2-11> 2013년까지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매뉴 .....	23
<표 3-1> 지자체 전통시장에 대한 년도별 지원예산 .....	35
<표 3-2> 사업 유형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	36
<표 3-3> 사업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지원현황 .....	36
<표 3-4> 사업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 세부추진현황 .....	37
<표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	38
<표 3-6> 전통시장 및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	40
<표 3-7>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	41
<표 3-8>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	42
<표 3-9> 전통시장의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	47
<표 3-10>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종합 .....	51
<표 4-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 및 세부기준 .....	57
<표 4-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연구진 평가 결과 .....	58

<표 4-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	59
<표 4-4>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종합 .....	61
<표 4-5>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우선순위 평가 결과 .....	62
<표 4-6>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	63
<표 4-7>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최소 설치기준 .....	64
<표 4-8> 입지 및 형태를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	67
<표 4-9> 건물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	69
<표 4-10>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	72
<표 4-11>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	75
<표 4-12>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	77
<표 4-13>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방안 .....	86
<표 4-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상 부처협업사업(예시) .....	88
<표 5-1> '15년 기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용가능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안) .....	100
<표 5-2> '15년 기준 전통시장 대상 작은도서관(문체부) 공모사업 추진 방안(안) .....	101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	5
<그림 2-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고객지원센터 등) 적용 사례 .....	25
<그림 2-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주차장) 적용 사례 .....	26
<그림 2-3>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	27
<그림 2-4>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다목적광장) 적용 사례 .....	27
<그림 2-5>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학부모 및 학생 대상 교육시설) 적용 사례 .....	29
<그림 2-6>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청년 대상 창업·예술공간) 적용 사례 .....	30
<그림 2-7>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문화공간) 적용 사례 .....	31
<그림 4-1> 배치형태에 따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80
<그림 4-2> 개선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82
<그림 4-3> 신축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83
<그림 4-4> 비건물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8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전통시장은 발생 특성 상 사람들의 이용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입지적 유리함에 기초하여 상품을 매개체로 한 사람(소비자와 상인) 간 다양한 관계가 형성·유지<sup>1)</sup>되면서 변화·존속하여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 사람들 간 다양한 활동과 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행위의 장이 아닌 커뮤니티 장으로 기능하였다. 다양한 사회기능의 결집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농촌 및 도시의 교류, 정보제공, 사교, 오락 등 사회기능의 중요한 결합 장<sup>2)</su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 시설·공간이 상행위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공간을 조성·운영하였다. 즉 전통시장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공간을 보유한 커뮤니티의 장으로, 이를 통해 상업적 기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용성 증대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95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침체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은 2004년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내부 문제(시설개선 및 인적역량강화 등) 해결에서 최근에는 전통시장의 다양성 확보(상업적·문화적 활성화) 측면으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농

---

1) 이상준,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28~29. 지방중소 도시는 사람(Population)과 활동(Activity), 토지(Land), 시설(Facility)로 구성되며, 전통시장은 지방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특히 사람은 다른 요소들을 형성시키고 변화를 유발하는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 유주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26.

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도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시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정책목표는 내부 문제해결을 통한 커뮤니티성 회복과 외부 사람(소비자)의 “자발적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며, 활성화사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세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상인역량강화, 장소성·문화성 강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중앙부처에서는 전통시장이 지역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사람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입지한 (소)도시 및 중심시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 대표 상업공간이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책만으로 전통시장의 “커뮤니티 회복” 및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시설·공간의 도입에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공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만,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더 많은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주차장 등을 확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통시장에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전통시장 내부 상업환경 등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이용” 확대 방안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밖에 없는 “피동적 이용” 확대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상행위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전통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정책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회복 및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활성화 정책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회복 및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 확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불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더 많

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나 시설의 점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활성화 정책은 내부 문제해결을 통해 전통시장의 커뮤니티 회복과 자발적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활성화 정책과 같이 내부 커뮤니티 기능 회복 및 자발적 이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이용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이 갖는 커뮤니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잠재적 소비계층의 “피동적 이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방안으로,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에 도입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재 추진 중인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자발적 이용 확대 모색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아와야만 하는 필요 기능이나 시설(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시장의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범위 내 수요자가 요구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 분석 등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내부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성화정책의 “자발적 이용” 확대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은 전통시장 이외에도 “커뮤니티시설”이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련 정책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이 어려운 외곽에 추진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편으로, 커뮤니티시설이 지역 내부로 흡수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정기적인 이용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중심시가지 재생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범위 내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중심시가지)를 이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커뮤니티시설 건립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 간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배경과 목적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로 설정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은 연구 목적 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의 “기능” 보다는 “공간과 시설”로 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소유권(공설시장, 사설시장)을 고려한 대상 설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기에 후속 연구로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입지하고 있는 68개 전통시장(정기시장 포함)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으로 설정한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

### 2) 연구의 방법

#### ① 전통시장 및 커뮤니티시설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검토

전통시장 및 커뮤니티시설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검토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구문헌, 정책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성과 방법 등을 검토한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수요 및 적용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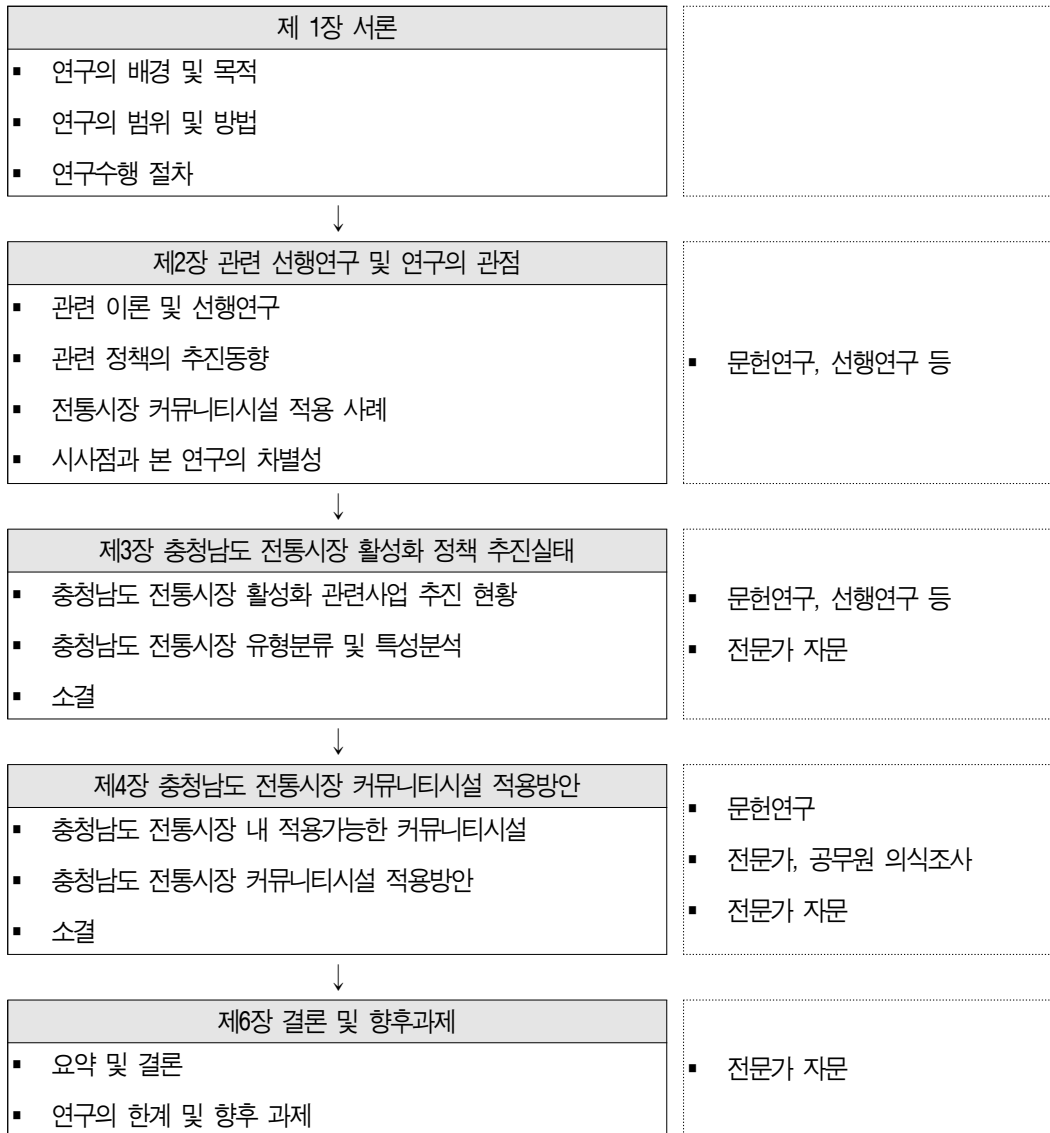
전통시장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적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적용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유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설정한다.

적용 수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실제 충청남도 전통시장 내 적용



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을 살펴본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화를 실시하고, 유형별 커뮤니티 시설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 세부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 3. 연구의 수행절차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 제2장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의 관점

### 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1) 전통시장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전통시장 개념 및 기능

전통시장<sup>3)</sup>은 일반적으로 시장(市場)<sup>4)</sup> 중 1980년대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 중 재개발 및 근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이상준, 2012)<sup>5)</sup> 다양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에서 제시된 전통시장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천식(2001)<sup>6)</sup>는 전통시장이란 삼국시대 동이전이 설치된 이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강규(2001)<sup>7)</sup>는 마을 장터의 의미로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소비자의 실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의미의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군수 외(1998)<sup>8)</sup>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매장 또는 장터로서, 주로 근대

---

3) 유주희, 전게서, 2008, pp.13~15. 전통시장이란 용어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 선포되면서, 기존 “재래시장”을 통칭하여 현대적 유통업체와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명문화된 정책 용어이다.

4) 위키 백과사전, 2015, <http://ko.wikipedia.org>.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 생활에서 시장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에서는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5) 이상준, 전게서, 2012, p.18.

6) 원천식, 전통시장 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산업경제연구원, 2001, p.35.

7) 김강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5.

8) 김군수 외, 경기도 전통시장의 합리적 재개발방안과 모형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42.

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즉 대략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또는 정기 시장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적인 대규모 소매업 기능이 취약하고 건물시설이 노후화하여 대부분 재개발 및 근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규칙(1914~1961)<sup>9)</sup>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제정된 법으로, “시장”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을 “장옥(場屋)을 설치하거나 장옥(場屋)을 설치하지 않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화물을 매매·교환하는 장소(5일제래시장)”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2) 시장법(1961~1986)<sup>10)</sup>은 시장규칙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매일 또는 정기, 계절적으로 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분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 동일건물 내 물품 매매교환 장소(대형점)로 정의하고 있으며, 1981년 개정을 통해서도 크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3) 도소매진흥법(1986~1997)<sup>11)</sup>은 시장을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 계절적으로 만나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류는 시장, 정기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편쇄화사업, 상점가로 구분하고 있다. 4) 유통산업발전법(1996~현재)<sup>12)</sup>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장을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장소를 활용하여 만나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

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朝鮮總督府令, 2012, <http://contents.archives.go.kr>, 大正三年九月十二日(1914년9월12일) 朝鮮總督府令第三百三十六號(朝鮮總督府官報 第六百三十五號)을 통해 제정된 시장규칙(市場規則)은, 제1조에서 장옥(場屋)을 설치하거나 장옥(場屋)을 설치하지 않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화물을 매매·교환하는 장소(5일제래시장),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시장건물에서 주로 곡물식료품을 판매하는 장소(공설시장), 위탁을 받아 경매에 의해 화물을 판매하는 장소(식료품경매시장)를 시장(市場)으로 정의하였으며, 大正九年四月一日(1920년4월1일) 朝鮮總督府令第三百十八號(朝鮮總督府官報 第二千二百九十號)를 통해 개정된 시장규칙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영업자가 모여서 건본이나 상표로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매매 거래하는 장소(주식·곡물거래소)를 시장으로 추가 정의하고 있다.

10)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시장법(1961에서의 )시장은 1.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 2. 전호의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 3.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 동일건물내에서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로 정의한다.

11)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12)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다. 시장에 대한 분류는 대규모점포, 정기시장, 임시시장, 상점가로 구분하고 있다. 5)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2006)<sup>13)</sup>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래시장을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현재)<sup>14)</sup>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자연발생적 혹은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한다.

〈표 2-1〉 국내 전통시장 법적·제도적 변천 현황

법·제도	시장규칙 (조선총독부)	시장법	도소매업 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	재래시장 특별조치법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시장 현황	장터시장 건물화	시장-점포 공간 확장	골목형시장 발달	골목형시장 난립 시설노후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시장환경개선 장터기능부가	시장환경개선 장터기능부가
지원 사업	시장구분 1.5일재래시장 2.공설시장 3.식료품경매시장 4.주식·곡물 거래소	시장구분 1.상설시장 2.정기시장 계절시장 3.동일건물 내 물품 매매교환 장소	시장구분 1.시장 2.정기시장 3.대규모소 매점포 4.도매센터 5.판매회사업 6.상점가	시장구분 1.대규모점포 2.상점가 3.전문상가 단지 4.체인사업 5.정기시장 임시시장	시설개선	시설·경영혁신	시설·경영혁신·문화성·전문성	전통시장의 특성화, 이용인구 증대 방안 모색
명칭	시장, 재래시장 등 병행사용				재래시장		전통시장	

1914 ⇒ 1961 ⇒ 1986 ⇒ 1997 ⇒ 2002 ⇒ 2004 ⇒ 2008 ⇒ 2013

자료 : 이상준 외 2인(2010),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3호, p.116.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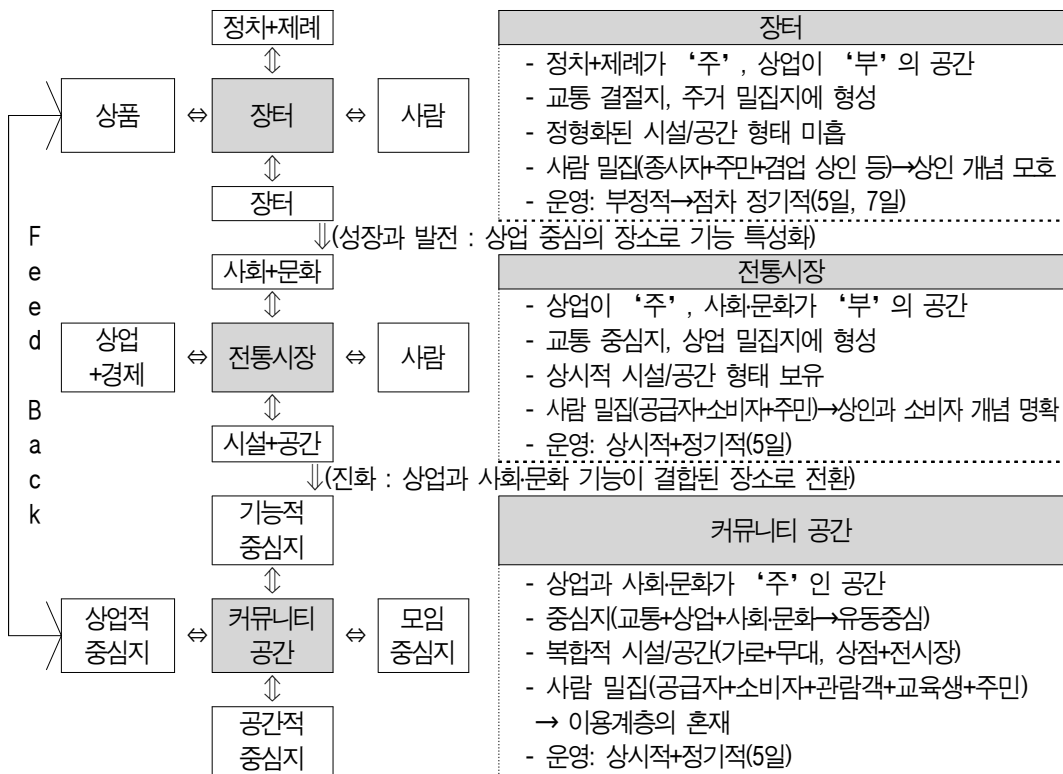
13)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재래시장을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으로 제시하고 있다.

14)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통시장이란 “일정한 장소와 상품을 매개체로 하여 다수의 수요자(소비자)와 공급자(상인 등)가 서로 교류하는 장소”로, 전통시장의 형성에 있어 사람(소비자, 상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을 매개체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야 상품 간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전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표 2-2〉 전통시장의 기능 변화



자료 : 이상준,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9. 수정·보완

따라서, 전통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상행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전통시

장으로 모으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발생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행위의 장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커뮤니티의 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상옥(1994)<sup>15)</sup>은 전통시장을 상업 중심의 물리적 시설·공간인 “전통시장”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요구되는 과거의 “장터”와 같은 기능적 “전통시장”에 대한 결합을 통해 “커뮤니티 장소”로 전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찬동(2005)<sup>16)</sup>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고용창출 및 직거래의 장, 지역커뮤니티 형성의 근간, 지역문화 형성의 주축,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준(2012)<sup>17)</sup>은 과거의 장터와 같이 도시 내 사람들의 유동의 중심지이자, 상업과 사회·문화적 시설·공간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종합하면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도시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전통시장 정체 및 쇠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추진되었으며, 대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의 전통시장(상점가, 마켓) 활성화에 대한 사례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졌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로, 이철규(2007)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이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15) 이상옥, 한국재래시장의 변천과 유통근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54.

16) 김찬동,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pp.15~16.

17) 이상준, 전계서, 2012, p.19.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대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전통시장 현황 및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내부 문제 해결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정책, 농촌중심지활성화정책 등과 연계하여, 소도시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표 2-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신창호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상점가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재래시장 활성화의 전략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상점가 활성화방안의 재래시장에의 시사점 분석</li> </ul>
한상호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도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재래시장과 차별화 요소 도출과 이를 위한 시설개선 관리 및 운영, 공간이용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도읍 재래시장의 공간이용 실태와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li> </ul>
이철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래시장 지원법 이후 현황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개선 방안 연구</li> </ul>
강명주 임채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부산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li> </ul>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 상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전통시장이 지닌 사람들의 모임과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재래시장(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과 더불어 주변 상점가 전체의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 및 내부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능강화 방안(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지역 및 도시의 재생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심시가지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시장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 및 지방중소도시 재생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보다 선도적이고 필요성이 높은 연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도시 재생연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지방중소도시 내 중심시가지 재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도심활성화 방안 모색, 전략적 차원에서의 추진가능한 사업 등을 연구하였다. 도심지역

에 대한 재생방안 연구와 둘째, 유형별 도심지역 재생 방안 연구를 통한 도심재생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윤정란(2007), 정영덕(2008)은 지방중소도시 도심지역에 대한 공동화 및 쇠퇴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기석, 김형진(2003), 이범현, 문채, 최강림(2009), 정연우, 이삼수(2009)는 지방중소도시 및 도심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와 이에 따른 재생 전략을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특성에 기초한 공공 공간 및 시설 활용과 이에 대한 기준설정 등 보다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주영, 임현성, 이상민(2009), 서수정, 고은정(2009)은 지방중소도시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공간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통시장 등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해서는 낙후된 지방중도시 도심지역에 대한 공동화 및 쇠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 공간 및 시설 활용, 새로운 기능도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4〉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방안 연구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계기석 김형진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역의 쇠퇴양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도심공간의 쾌적화를 위한 기본방향, 시행전략 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 및 쾌적성 제고방안</li> </ul>
윤정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규모 역사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도심 상업지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재생수법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규모 역사도시의 도심상업지 재생방안 연구</li> </ul>
정영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과 이의 거점으로 서 중소도시 도심지역 재생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중소도시 도심지역 재생에 관한 실증적 연구-전남5개 중소도시 사례를 중심으로</li> </ul>
이범현 문채 최강림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인구 및 고용변화율을 고려하여 유형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유형설정에 관한 연구</li> </ul>
정연우 이삼수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가 처해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중소도시의 실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li> </ul>
차주영 임현성 이상민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공공 공간의 조성과 이용, 관리 방안에 대한 전략과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도시의 도심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li> </ul>
서수정 고은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도시 재생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의 사회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 공간 확보의 중요성 제기 및 지원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li> </ul>



## 2) 커뮤니티시설 관련 이론적 접근

### (1)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커뮤니티(communit<sup>18)</sup>란 같은 지면에 근거하여 관심과 의식을 공유하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사회를 의미한다.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에 소통을 통한 생활양식 및 의사의 동질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구성원 간 소통의 “장소”에 대한 영역과 범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러한 장소의 영역과 범위에 따라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나 영향력의 범위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표현되면서 지역 단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이들 간의 균형적 공존과 상생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인 제이콥스는 그의 저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2010)”에서, “모든 도시계획은 이웃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동네의 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사람 간 관계 회복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공존과 상생발전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온라인 등을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티와 같이 과거와 달리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기반하지 않는 커뮤니티 형성도 가능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차도 구성원 간 공유를 위한 장소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소성에 대한 의식은 희박하지만, 그 안에서의 이념과 사고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모임의 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가상의 장소성”을 구현하게 된다.

즉, 커뮤니티란 일정한 장소나 이념 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정서적 공유와 연결에 근거한 소속감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집단이다.

- 일정한 장소나 이념에 따라 커뮤니티를 “광의,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 광의의 커뮤니티는 “가상의 장소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구성원들이 일정한 이념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공동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

18) 위키 백과사전, 2015, <http://ko.wikipedia.org/wiki>.

- 협의의 커뮤니티는 일정한 장소(지역 등)를 공유하며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정체성과 지역성을 확보하는 공동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 (2) 커뮤니티시설의 개념 및 종류

커뮤니티시설(community facilities)이란<sup>19)</sup>,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시설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유치원, 초중고교, 진료소, 병원, 집회소, 도서관 등이 있다. 즉, 커뮤니티시설은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시설, 공공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민(커뮤니티 구성원 등)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공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공동시설(public facilities)은 공공이 투자하는 시설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2015)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두루 쓸 수 있는 모든 시설로, 공원, 집회소, 공동 목욕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5항)<sup>20)</sup>에서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조순재 등(1996), 송미령·박시현(2001)은 공동시설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Communal Facilities)”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재현 등(2007)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김광선 등(2012)은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형태의 시설(일부 비건축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sup>21)</sup>

다음으로, 공공기반시설은 주민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네이버 지식백과(2015)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

19) 네이버 지식백과, 2015, <http://terms.naver.com>

20)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21) 조순재·임승빈·오희영, 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2(2), pp.37~44.  
 송미령·박시현, 2001,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재현·황민영·신주영, 2007,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김광선·이규천, 2012, 농촌 공공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9~15.

〈표 2-5〉 연구자별 커뮤니티 관련시설 유형

구분	공동시설	공공기반시설	공공시설
네이버 지식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 집회소, 공동 목욕탕,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립 학교, 공립 병원, 국·공립 도서관, 시민 회관, 각종 보건 시설, 도로, 공원, 체육관, 상하수도 시설 등</li> </ul>
조순재 등(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농업관련시설, 생산시설, 오수정화시설</li> </ul>		
송미령·박시현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관련시설(상업시설, 공공시설, 건강관련시설, 교육시설, 수요발생시설, 커뮤니티시설), 생산관련시설</li> </ul>		
박재현 등(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건강관련시설, 교육시설, 생산관련시설, 커뮤니티시설</li> </ul>		
김광선 등(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건강·운동관련시설, 교육·보육관련시설, 농업생산관련시설, 수산업 관련시설, 기타 소득시설, 기타공공시설</li> </ul>		
변필성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li> </ul>
허학영 등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편익시설, 생산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li> </ul>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6항)<sup>22)</sup>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허학영 등(2002)은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공편익시설, 생산기반시설, 마을기반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sup>23)</sup>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22)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23) 네이버 지식백과, 2015, <http://terms.naver.com>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필성(2014)<sup>24)</sup>은 공공시설에 대해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시설 유형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커뮤니티시설은 지원주체와 무관하게 지역에 입지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도로, 공원 등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식당 등 사익을 담보하지만 주민의 공동이용 측면만을 고려한 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입지한 지역에 무관하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포함한다. 형태적으로 건축물이나 비건축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sup>25)</sup>은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생활권에 따라, 소생활권(인구 1~2만명)을 형성하는 제1차 커뮤니티, 중생활권(인구 5~10만명)을 형성하는 제2차 커뮤니티, 대생활권(인구 20~30만명)을 형성하는 제3차 커뮤니티로 구분된다.

〈표 2-6〉 커뮤니티 계층별 인구 및 시설

구분	인구	필요시설					
		행정	여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	유통
제1차 커뮤니티 (소생활권)	1~2 만명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아동공원, 어린이놀이터, 소단위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탁아소, 경로원, 집회장, 공회당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수퍼마켓, 소매시장, 은행, 지역사회금고
제2차 커뮤니티 (중생활권)	5~10 만명	출장소	운동장, 지구공원	고등학교,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직업보도소, 상담소	보건소, 종합병원	지구중심쇼핑센터, 소단위도매시장
제3차 커뮤니티 (대생활권)	20~30 만명	구성, 경찰서, 소방서	종합운동장	전문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불구자보호소	대형 종합병원, 특수병원, 보건연구원	부도심백화점, 유통단지

자료 : 한국도시지리학회,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008, 국토해양부, p.15.

24) 변필성,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2014, pp.41~43.

25) 한국도시지리학회,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방안 구축, 2008, 국토해양부, p.15.

###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개념 및 종류

#### ①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개념과 속성

앞 선 연구결과 커뮤니티시설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종합하면 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은 지원주체에 무관하게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시설과 유사하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공간 영역으로 입지조건을 한정하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피동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으로 기능적 영역을 한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일반적인 커뮤니티시설과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을 결합하여 정의하였다.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야 할 속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첫째, 공공이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시설 : 지원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것은, 먼저 연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 등 국가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국내 전통시장의 60%이상이 공설시장으로 소유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및 사업이 국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 공간적 범위를 전통시장 및 중심시가지로 한정된 것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입지 대상이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이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 자체가 공간적 여유나 유희공간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의 한정으로 결국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공간적 규모, 기능적 특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셋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 형태의 시설 :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은 토지(부지)와 시설(점포 등)을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과 활동이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은 단순히 “시설(건축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내부가로, 외부광장,

---

26) 이상준, 전계서, 2012, pp.28~29.

골목교차점 등 다양한 “공간(비건축물)” 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속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공공이용 및 공공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중심시가지 인근(전통시장 인근)에 입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일부 비건축물 포함) 형태의 시설” 로 정의한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

커뮤니티시설의 범위는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 제1차 커뮤니티(인구 1~2만명), 제2차 커뮤니티(인구 5~10만명), 제3차 커뮤니티(인구 20~30만명)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은 인구 규모가 크고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면적은 넓지만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현실에 적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와 달리 시·군 혹은 읍·면 내에서 개별 마을 단위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 시·군소재지 혹은 읍·면소재지만이 도시와 같은 밀집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의 범위를 이러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범위를 충청남도 내 도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인구평균이 1만명(최소 약 1,300명, 최대 66,800명)임에 따라, 1만명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구분한다. 1차 생활권(소생활권)은 인구규모는 5천명 이하의 행정구역 상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생활권(중생활권)은 인구규모는 5천명 ~ 1만명이하의 행정구역 상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한다. 3차 생활권(대생활권)은 인구규모는 1만명이상의 행정구역 상 읍·면·동소재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맞추어 각각의 지역 내 입지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재분류하도록 한다.

〈표 2-7〉 충청남도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구분	총 인구(명)	행정구역(개)	평균 인구(명)
동	902,555	46	19,621
면	674,179	137	4,921
읍	495,756	24	20,657
총합계	2,072,490	207	10,012

자료 : 시군 2013년 통계연보, 2015.

### ③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유형

커뮤니티시설은 시설형태에 따라, 수도, 열공급설비 등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이용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표출할 수 없는 시설부터, 우체국, 보건소, 학교, 도서관 등 사람들이 기능적·공간적으로 모두 이용·활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설(건축물 혹은 비건축물 모두 포함)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유형은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정의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생활관련시설과 생산관련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활관련시설은 다시 공간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교통시설, 기반시설, 기타공공시설, 놀이휴게시설, 문화시설,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행정시설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분류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분류가 필요하다.

〈표 2-8〉 시설형태 및 규모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유형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생활 관련 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마을숲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공원 및 광장, 공지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은행(농협, 수협 등), 우체국, 방송통신시설
	교육시설	학교(초,중,고등학교), 주민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은행(농협, 수협 등), 우체국, 방송통신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 주민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연구시설		연구시설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공항, 기차역 및 기타 건물형태 철도시설,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기반시설	수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수도, 상수도, 하수도
	기타공공시설	군사시설, 종합고용지원센터	군사시설, 종합고용지원센터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공공공연장,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주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공공공연장, 입주자집회소,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보건·의료시설	건강관리실, 약방	건강관리실, 병의원, 약국, 약방	지방문화원 건강관리실, 병의원, 약국, 종합의료시설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	경로당(노인정)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마을회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관광농원, 잡화점, 방앗간, 시장, 산지유통센터,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체험시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관광농원, 미곡종합처리장, 미장원, 이발소, 잡화점, 방앗간, 술집, 시장, 식당, 산지유통센터,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체험시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미곡종합처리장, 미장원, 이발소, 잡화점, 술집, 시장, 식당,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체험시설, 안내센터
위생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찜질방	장례식장, 목욕탕(작은목욕탕), 찜질방	장례식장, 목욕탕(작은목욕탕)
체육시설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운동시설, 체육공원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시군청
생산관련시설	가공시설, 시설하우스, 저장창고 및 저온저장고, 육묘장, 퇴비시설, 포장장, 작업장, 축사, 정미소	가공시설, 시설하우스, 저장창고 및 저온저장고, 육묘장, 퇴비시설, 포장장, 작업장, 축사, 직업훈련시설, 정미소	가공시설, 저장창고 및 저온저장고, 직업훈련시설, 정미소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야 할 속성에 기초하여, 연구자별로 제시하고 있는 유형 정의를 재조정하였다. 먼저, 대분류에서 생활관련시설과 생산관련시설로 분류하던 것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에 근거하여 생활관련시설로만 한정하였다. 이는 생산관련시설들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중심시가지 내에 입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중분류 기준으로 공공행정시설과 보건·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공간시설, 상업시설을 재설정한다. 공공행정시설은 다시 소분류인 행정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되며, 보건·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시설과 보건의료시설, 위생시설로 구분한다. 문화·복지시설은 문화시설, 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로 구분하며, 교통·공간시설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로 구분한다. 그리고 다른 시설유형과 복합화하기 어려운 상업시설은 중·소분류 기준으로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 2. 관련 정책의 추진 동향

### (1)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 등으로 인해 기존 도시의 상대적 정체 및 쇠퇴가 발생하면서, 기존 도시의 중심시가지에 입지한 전통시장도 정체 및 쇠퇴현상을 겪게 되었다. 1990년 이후 정체 및 쇠퇴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져 왔으며, 특히 소비자의 재유인을 위한 낙후된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에 주안점을 둔 활성화사업이 추진되었다.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설적으로 낙후된 전통시장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중심시가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전통시장의 정체 및 쇠퇴현상은 도시의 정체 및 쇠퇴와 맞물려 발생하며, 이로 인해 도시의 중심시가지가 함께 활력을 잃는 문제점이 있다. 중심시가지가 정체 및 쇠퇴가 되고 신시가지 조성 및 신축 건물 건립 등 외곽지역에 대한 개발이 확산되면서, 지역주민의 중심시가지에 대한 이용성은 더욱 더 축소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표 2-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내역

구분	금액(억원)		추진사업내역	효과 및 문제점
전국	소계	13,779	-	<b>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개선빈점포 감소(약 729개 감소)</li> <li>■ 소비자 방문 증가(약 5,000명)</li> <li>■ 매출액 증가</li> </ul>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 시설개선 ⇒ 특성화된 지원전략 마련 필요</li> <li>■ 전통시장 단위 지원 ⇒ 상권 단위 지원방안 마련 필요</li> </ul>
	평균	10.8	-	
	시설현대화	12,050(87.5%)	아케이드,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등	
	경영혁신	1,729(12.5%)	마케팅, 상인교육, 공동상품권 등	
충남	소계	3,200	-	<b>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개선빈점포 감소(약 729개 감소)</li> <li>■ 소비자 방문 증가(약 5,000명)</li> <li>■ 매출액 증가</li> </ul>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 시설개선 ⇒ 특성화된 지원전략 마련 필요</li> <li>■ 전통시장 단위 지원 ⇒ 상권 단위 지원방안 마련 필요</li> </ul>
	평균	약 47억 (※ 68개 시장)	-	
	시설현대화	3,130(97.6%)	아케이드, 하수도, 건물개량, 공동창고 등	
	경영혁신	77.8(2.4%)	활성화구역, 브랜드, 로그개발, 교육장조성 등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12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전문성 제고, 전통시장의 문화적 특성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외부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상인 고령화 및 감소 등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 재유입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2-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낙후되고 쇠퇴하여 개보수 및 정비에 필요하거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전통시장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li> </ul>
지원 내역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홍보 및 특화사업 등 마케팅 활동지원</li> <li>- 이벤트 및 경품행사, 공동쿠폰, 광고·홍보, 패션쇼, 특가판매 등</li> </ul>
		상인대학 (점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상인조직 및 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li> <li>(점포대학) 핵심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li> </ul>
		상인조직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 행정지원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 보조</li> </ul>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시장 10곳, 상인 50명 이상 참가)</li> </ul>
		전통시장 ICT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의 콘텐츠(시장·상품정보 등)와 ICT가 융합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li> </ul>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POP 등 한류공연·음식, 한국문화 체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필수 관광코스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li> </ul>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li> </ul>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개발, 진열개선(VMD), 핵심포 육성, 커뮤니티 조성 등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브랜드로 육성 지원</li> </ul>
	시설현대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 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li> </ul>
	주차환경개 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li> </ul>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15

##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은 1970년대 도읍가꾸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산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추진되기 시작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14)에서는 농촌중심지와 배후 농촌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한 농촌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중심지 및 배후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농촌중심지 즉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등 커뮤니티시설, 전통시장 등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커뮤니티시설 및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들 시설이 농촌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며 특히 농촌주민을 농촌중심지로 끌어들이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근본 취지가 농촌중심지 기능강화 및 종합적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간 융복합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단위사업이 아닌 농촌중심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장점 있다. 그러나 사업 분야가 지역경관개선에 포함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관하여 추진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표 2-11〉 2013년까지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아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소규모체육공원조성 등
지역 경관개선	소득기반	재래시장(전통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정비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지역 역량강화 (SW)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부대비용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2013, p.25.

### (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중심시가지의 노후화 및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sup>27)</sup>이다.

도시재생정책은 경제기반재생형과 근린재생형의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각각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장·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주민 참여에 기반하여 낙후된 중심시가지 등의 재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H/W사업 및 S/W사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소 중심적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부처 사업의 연계, H/W사업과 S/W사업 간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 발굴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 즉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커뮤니티성(공동체성) 증진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안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시재생정책은 중심시가지 일원을 대상을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공간 및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복합커뮤니티시설·공간 조성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27) 도시재생사업단, <http://kourc.or.kr/tb/jsp/index.jsp>, 2015.

###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사례

#### 1) 전통적 상업활동 보조시설 적용 사례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한 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공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편리한 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활동을 하면서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조성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고객쉼터 및 고객편의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 (1) 고객쉼터 및 고객편의센터 조성 사례

고객쉼터 및 고객편의센터는 상업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휴식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시설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총 13개 전통시장에 조성하였다. 고객쉼터 및 고객편의센터의 조성은 건물형태로 건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장옥형태로 건립하는 사례도 있다. 기능적으로는 2개 이상의 기능 공간을 복합하여 건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고객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있다.



건물형(공주산성시장)  
출처: 특급뉴스, 2009



장옥형(보령 웅천시장)  
출처 : 금강일보, 2013

〈그림 2-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고객지원센터 등) 적용 사례

## (2) 주차장 조성 사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형 시설은 주차장이다. 모든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소비자 이용편의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공간적 활용에서 전통5일장이나 축제·이벤트 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든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의 조성은 건물형태나 노면주차장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면주차장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건물형(영주전통시장)

출처 : <http://m.blog.daum.net>



노면형(태안상설시장)

출처 : 충남일보, 2009

〈그림 2-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주차장) 적용 사례

## 2) 기존시설 연계 전통시장 기능강화 시설 도입사례

전통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상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먹거리”이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농수축산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전통시장의 주력상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적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전통시장이 쇠퇴하면서 이러한 주력상품의 판매 또한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업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기능의 도입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중복성,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 (1) 전통시장 내 상품 이용 사례

서울 통인시장의 경우, “도시락카페”를 설립하여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구입한 다양한 먹거리나 반찬거리 등을 도시락 형태로 포장·판매하거나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도시락카페의 조성으로 매출액 증가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가 젊은 계층의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되게 되면서 전통시장 이용계층의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 2-3〉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출처 : Newdaily, 2012.

### (2) 전통시장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 연계 사례

충남 보령중앙시장의 경우, 상인협동조합 주도로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한 “머드향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전통시장 내 상품을 활용한다기 보다는 지역 농산품을 유통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서의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 봉화상설시장에서는 전통시장 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전통시장에 연계하여 설치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지역 내·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중앙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출처 : 보령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2015.



봉화상설시장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출처 : 봉화군청, 2009.

〈그림 2-4〉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다목적광장) 적용 사례



### 3) 새로운 기능 도입 사례

과거의 전통시장은 국가의 정치와 제례가 이루어졌던 도시 내 가로 및 공터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 간의 모임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던 장소<sup>28)</sup>라는 정의에서와 같이, 단순히 상업적 활동만을 전개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놀이와 소통, 교류 등을 자유롭게 했던 장소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계층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로 한정되고 있다. 이용계층이 한정된다는 것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 상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계층을 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이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이용계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전통시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전통시장이 갖고 있던 기존 기능(상업기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의 접목을 통해, 전통시장 내 새로운 이용계층을 발생시키고 이를 소비확대와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 (1)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교육시설 도입 사례

전통시장의 이용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로 전통시장으로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건립, “북카페” 조성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자체 주도의 “북카페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마을 등에 조성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내 빈점포 활용(예산절감 측면) 및 이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

---

28) 이상준, 전계서, 2012, p.18.





작은도서관(서동전통시장)  
출처 : 부울경뉴스, 2012.



북카페 및 식물원(공주산성시장)  
출처 : 포토in충남, 2014.

#### 〈그림 2-5〉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학부모 및 학생 대상 교육시설) 적용 사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서동전통시장 내 작은도서관,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내 작은도서관, 안양시 관양전통시장 내 희망장난감도서관, 안동시 안동구시장 내 희망장난감 등 전통시장 내 유휴부지 및 빈점포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동전통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총 6억 5천만원을 들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 이 중 일부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찾아오지 않던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공주산성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내 유휴부지(공터+빈점포)를 활용한 “미니식물원과 북카페”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271㎡ 규모의 공간에 유리온실, 북카페,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여 기존에 전통시장을 외면하던 주부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를 활용하여 어린이들과 주부를 함께 전통시장을 불러들이고, 기존에 만남의 장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주부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주산성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청년 대상 창업·예술공간 도입 사례

전통시장 이용계층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사례 중, 지역 청년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공간 및 예술활동공간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황학동 중앙시장의 경우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전통시장 내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 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청년들의 유입과 빈점포 해소, 새로운 소비자의 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황학동 중앙시장 이외에도 전주남부시장 레알뉴타운, 부평로터리 지하상가 부평로터리마켓 등 많은 전통시장에서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산 창동예술촌, 인천 남구 평화시장 내 문화예술촌, 광주 대인시장 예술촌 등 청년 예술가들을 전통시장 내부로 유입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이다. 이들에게 빈점포를 제공하고 이들은 전통시장 내에 들어와 다양한 예술활동 및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새로운 이용객이 유입되는 선순환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창업공간(황학동 중앙시장)

예술공간(광주 대인시장)

출처 : <http://blog.hyundai.co.kr>, 2015. 출처 : <http://blog.hyundai.co.kr>, 2015.

〈그림 2-6〉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청년 대상 창업·예술공간) 적용 사례

### (3) 지역주민 대상 문화공간 도입 사례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단순한 상업활동만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공간을 활용한 이벤트 광장 혹은 쌈지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전통시장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노지형태로 조성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건물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장옥형태의 지붕을 씌워 상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지역도 있다.



광장형(공주산성시장)  
출처 : 팜뉴스, 2012.



쌈지공원형(서산동부시장)  
출처 : 씨티타임즈, 2013.

〈그림 2-7〉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문화공간) 적용 사례

#### 4) 소결

사례조사 결과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전통시장 내부로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성을 지원하는 시설도 있고,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도 있으며, 전혀 새로운 시설이 전통시장 내부로 도입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의 도입 목적은 전통시장에 현재와 다른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입되는 시설은 목적계층은 서로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시설은 전통시장 내 유희부지나 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건물형태 뿐만이 아니라 광장형태 혹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기 하고 있다.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예산은 대부분 상인들의 자부담보다는 기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되었으며, 일부 대규모 시설(예, 공주산성시장 문화광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규모로 조성이 가능한 형태이다.

결국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도입되는 시설의 형태나 유형은 건물형, 광장형 등 다양하고 규모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이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유희부지와 빈점포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 1) 시사점

전통시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시가지에서 상품을 매개로 사람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람들의 이용정도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결정된다. 그런 만큼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중심시가지 및 도시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 내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기능과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전통시장 내부의 문제 개선을 통한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내부의 인적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과 더불어 “피동적 이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을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농촌지역에서 사람들의 이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공간으로, 일정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커뮤니티시설 건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커뮤니티시설이 중심시가지 내부지 확보 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중심시가지보다는 토지확보가 용이한 기존 공공시설(행정시설 등)이나 외곽지역에 건립하게 되어, 충분한 규모 확보 및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시설(전통시장과 커뮤니티시설)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내 사람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전통시장과 커뮤니티시설 간의 연계·복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전통시장”과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간의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여 두 시설 간 시설적·공간적 융복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관점

중앙정부 관련 정책 및 사업 간 연계·복합화를 통해, 충청남도과 시·군이 주체적으로 이들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더 많은 유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충청남도과 시·군, 전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전통시장과 커뮤니티시설 간 연계를 통한 중앙정부 정책·사업 간 “연계·복합화”, 시·군 부서 간 “연계·융합”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요구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유입(피동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전통시장 내 사람의 유입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통시장별로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과 시·군,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낙후된 중심시가지 재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 제3장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실태

### 1.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현황

#### 1)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과거부터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2004년 제정된 관련 법·제도에 근거하여,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설현대화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9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단순한 시설환경개선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한 전통시장들이 서비스 등 낙후된 경영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최근까지도 시설현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최근(2013년 이후)에 들어서 경영혁신사업의 비중을 높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은 2015년 기준 총 68개로 2015년 현재 약 3,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29)</sup>. 1개 시장 평균 약 47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며, 연 평균 24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평균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9)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연도별 지원내역, 2015.

〈표 3-1〉 지자체 전통시장에 대한 년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이전	2005년~2008년	2009년~2012년	2013년~현재	총합계
천안시	1,580	22,578	6,279	2,100	32,537
공주시	3,982	7,255	8,169	4,485	23,890
보령시	2,100	960	4,869	2,174	10,103
아산시	5,220	7,631	5,171	4,150	22,172
서산시	0	8,244	1,346	6,822	16,412
논산시	15,025	9,108	3,663	925	28,721
계룡시	0	300	0	5,110	5,410
당진시	4,730	5,301	4,577	3,226	17,834
금산군	5,367	9,068	13,585	1,486	29,506
부여군	1,997	9,093	8,745	907	20,742
서천군	10,250	4,247	1,930	2,025	18,452
청양군	5,315	3,741	5,818	1,289	16,163
홍성군	11,837	7,840	11,880	2,398	33,955
예산군	3,979	2,550	4,319	239	11,087
태안군	4,652	2,402	2,152	1,627	10,833
연기군	5,164	6,240	11,370	0	22,774
총합계	81,198	106,559	93,872	38,963	320,591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년도별 지원내역, 2015

주1 : 2004년 관련법 제정

2005년~2008년 시설현대화 중심의 사업 추진

2009년~2012년 시설현대화 중심의 경영혁신사업 추진

2013년~ 경영혁신사업 비중을 높여, 전통시장 문화성 제고·특성화 방안 모색, 상인역량강화 등 추진

주2 : 연기군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정확한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포함시킴

주3 : 충남도에서 직접 지원한 경영혁신사업비(104백만원)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외함

충청남도에서 추진되어 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의 2.4%인 7,684백만원이 경영혁신사업에 지원되었으며, 총 사업비의 97.6%인 313,010백만원이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되었다. 이는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의 시설적 낙후도가 심각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영혁신지원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는 2009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비의 총 0.6%만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충청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낙후된 시설환경개선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3-2〉 사업 유형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시군별	2004년 이전	2005년~2008년	2009년~2012년	2013년~현재	총합계
총합계	81,302	106,559	93,872	38,963	320,695
	25.4%	33.2%	29.3%	12.1%	100.0%
경영혁신 지원사업	464	5,274	1,233	714	7,684
	0.1%	1.6%	0.4%	0.2%	2.4%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80,838	101,284	92,639	38,249	313,010
	25.2%	31.6%	28.9%	11.9%	97.6%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년도별 지원내역, 2015

본 연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 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커뮤니티시설 유형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의 약 51.2%, 총 164,117백만원 규모의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율이나 예산 규모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이다. 반면에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은 전체의 47.1%, 총 150,60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사업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지원현황

구분		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커뮤니티시설	총합계
총합계	사업비(백만원)	5,972	150,606	164,117	320,695
	비율(%)	1.9%	47.0%	51.2%	100.0%
경영혁신 지원사업	사업비(백만원)	5,972	0	0	5,972
	비율(%)	1.9%			1.9%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비(백만원)	0	150,606	164,117	314,723
	비율(%)		47.0%	51.2%	98.1%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년도별 지원내역, 2015

그러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내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교통시설, 즉 주차장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전통시장에 대내외적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사람들의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커뮤니티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시장 내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은 다양하며,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한가지 사업 유형으로의 편중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통시설을 제외하고 실제 커뮤니티시설로 분류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10.24%, 총 32,836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체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20% 수준,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사업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 세부추진현황

구분	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커뮤니티시설		총합계	
	사업비 (백만원)	비율(%)	사업비 (백만원)	비율(%)	사업비 (백만원)	비율(%)	사업비 (백만원)	비율(%)
ICT육성	129	0.04%					129	0.04%
공동마케팅	2,137	0.67%					2,137	0.67%
브랜드개발	130	0.04%					130	0.04%
상인조직역량강화	390	0.12%					390	0.12%
상품전시회	40	0.01%					40	0.01%
시장연구	745	0.23%					745	0.23%
운영실태진단	98	0.03%					98	0.03%
특성화사업	2,303	0.72%					2,303	0.72%
기반시설			20,341	6.34%			20,341	6.34%
비가림시설			92,243	28.76%			92,243	28.76%
안내시설			4,474	1.40%			4,474	1.40%
점포시설			33,048	10.31%			33,048	10.31%
주문배송센터			500	0.16%			500	0.16%
도로					7,045	2.20%	7,045	2.20%
도로시설					3,714	1.16%	3,714	1.16%
문화시설					2,967	0.93%	2,967	0.93%
복지시설					594	0.19%	594	0.19%
상업시설					5,266	1.64%	5,266	1.64%
공간시설					11,783	3.67%	11,783	3.67%
공공시설					311	0.10%	311	0.10%
광장조성					650	0.20%	650	0.20%
교육시설					506	0.16%	506	0.16%
교통시설					131,281	40.94%	131,281	40.94%
총합계	5,972	1.86%	150,606	46.96%	164,117	51.18%	320,695	100.00%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년도별 지원내역, 2015

## 2) 전통시장 관련정책 추진현황

###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관련사업 추진현황

전통시장은 입지 및 기능적 특성 상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은 대부분 다른 사업, 예를 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이후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총 31개 사업대상지에 총 사업비 18,142백만원, 2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구분	충남 합계		읍 지역						면 지역					
			소도읍육성사업		읍면소재지		소계		거점면소재지		읍면소재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충남 합계	31	548,142	13	403,220	5	50,105	13	94,817	2	14,120	11	80,697		
공주시	2	37,200	1	30,200	-	-	1	7,000	-	-	1	7,000		
금산군	3	64,482	1	50,362	-	-	2	14,120	1	7,120	1	7,000		
논산시	3	52,694	2	46,144	-	-	1	6,550	-	-	1	6,550		
당진시	2	29,480	1	19,480	1	10,000	-	-	-	-	-	-		
보령시	1	13,559	1	13,559	-	-	-	-	-	-	-	-		
부여군	3	38,044	1	24,034	-	-	2	14,010	-	-	2	14,010		
서산시	2	17,000	-	-	1	10,000	1	7,000	-	-	1	7,000		
서천군	3	24,499	1	7,499	1	10,000	1	7,000	1	7,000	-	-		
아산시	4	34,092	-	-	1	10,010	3	24,082	-	-	3	24,082		
예산군	4	37,960	1	12,810	1	10,095	2	15,055	-	-	2	15,055		
청양군	1	75,421	1	75,421	-	-	-	-	-	-	-	-		
태안군	1	86,160	1	86,160	-	-	-	-	-	-	-	-		
홍성군	2	37,551	2	37,551	-	-	-	-	-	-	-	-		

자료 : 김정연 외 2인,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2014년 전략과제, p.24 재수정

충청남도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사업의 대상측면에서,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역(일부 천안시, 아산시 제외)이 소도시 즉 농촌지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지역 내 중심시가지를 대상으로 집중개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큰 사업비와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세부 추진 내용이나 사업 명칭은 계속 변화해 왔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대상이 유사하여 지역에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당해 사업의 대상지가 읍·면소재지 특히 소재지 내 중심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소재지에서는 활용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은 핵심사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통시장 내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부분 상업적 측면에서의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사업은 전통시장 내부의 시설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내 부족한 문화 및 복지시설 등과 같은 농촌형 커뮤니티시설의 도입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3년 이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사업(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총 사업비 18,142백만원, 총 31개 사업대상지에 2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중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총 2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연장, 복지시설 등 복지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총 2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는 평균 약 20억~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관련사업은 지역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전통시장 내부 혹은 주변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은 대부분 전통시장과 인접한 중심시가지나 일부 전통시장 내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전통시장 및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사업비	총 사업수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				전통시장 관련사업	
			복지시설		문화시설			
총합계	548,142	223	8	9.1%	16	9.1%	21	9.1%
공주시	37,200	11	1	3.8%	1	3.8%	1	7.7%
금산군	64,482	26	1	5.3%	1	15.8%	2	5.3%
논산시	52,694	19	1	6.7%	3	6.7%	1	13.3%
당진시	29,480	15	1	0.0%	1	25.0%	2	0.0%
보령시	13,559	4	0	8.0%	1	4.0%	0	12.0%
부여군	38,044	25	2	0.0%	1	7.7%	3	7.7%
서산시	17,000	13	0	0.0%	1	0.0%	1	7.4%
서천군	24,499	27	0	3.8%	0	7.7%	2	11.5%
아산시	34,092	26	1	3.8%	2	3.8%	3	7.7%
예산군	37,960	26	1	0.0%	1	10.0%	2	10.0%
청양군	75,421	10	0	0.0%	1	9.1%	1	9.1%
태안군	86,160	11	0	0.0%	1	20.0%	1	20.0%
홍성군	37,551	10	0	40.6%	2	122.7%	2	120.8%

자료 : 1. 농어촌공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전수조사」, 2012.

2. 시·군별 내부자료.

## (2)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관련사업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은 낙후된 도시 내 중심시가지지를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4년 천안시와 공주시가 근린재생형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같이 추진실적이 부족하여 전통시장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두 지역(천안시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천안시는 동남구청 인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문화특화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천안공설시장, 천안명동거리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개 분야 12개 세부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전통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총 8개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전통시장 인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간적·기능적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통시장(명동거리) 인근의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형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 및 전통시장에 대한 유동인구 증가 및 이를 통한 커뮤니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표 3-7〉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사업명	세부사업	대상지
공간(空間) 재생뱅크 운영사업	▪ 빈 空間 DB 구축 사업	
	▪ 빈 空間 활용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운영사업	
	▪ 지하상가 창조적 공간 재배치	▪ 지하상가
청년 네트워크 기반 조성사업	▪ 커뮤니티 기숙사 조성 및 운영	▪ 명동거리 일원
	▪ 동아리방 조성 및 활동 지원 사업	▪ 명동거리 일원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	▪ 문화·예술 팩토리(Factory) 조성사업	▪ 공설시장 일원
	▪ 문화·예술 스튜디오 조성	▪ 공설시장 일원
다문화 특화사업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	▪ 공설시장 일원
	▪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 공설시장 일원
복합문화 특화거리조성사업(MCSM)	▪ 문화미당 조성사업	
	▪ 완전도로(Complete Street) 조성사업	
	▪ 어울림 거리 조성사업	▪ 명동거리 일원

자료 :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충남연구원 소도시연구회 발표자료, p.19, 2014.

다음으로, 공주시는 공주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 길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등 강남지역 원도심지역으로, 공주산성시장과 공주산성시장활성화구역(중동상점가 등) 등 공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2곳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총 11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1개 사업이 전통시장(공주산성시장)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3개 사업이 공주산성시장활성화구역(중동상점가)을 대상으로 문화적 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공주산성시장을 대상으로 한 “백제전통시장 이야기골목길 조성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성을 담보하고 전통시장 자체의 커뮤니티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표 3-8〉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사업명	세부사업	대상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학연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고도알기 산성골 도시재생대학	기존 고도육성아카데미, 2013 도시재생대학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2회 도시재생대학운영	
박제된 백제문화 찾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소장품 진품명품 경진대회 개최</li> <li>마을별 옛 문화장인 인증 및 프로그램 발굴</li> <li>공주 고유의 유무형 문화찾기 캠페인</li> </ul>	
원스톱 백제문화 이야기 테마관광	백제에서 근대까지의 공주역사를 토대로 웅진로, 국고개, 왕릉로, 제민천 중심의 공간과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백제왕도 이야기 해설사 양성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테마관광과 연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공주시민들로 구성된 이야기 해설사를 양성함	
백제문화 전통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집포와 빈건물을 활용한 역사문화 예술촌 조성</li> <li>할머니 난전길, 약령골목, 국수골목길 조성을 통한 특화 골목길 조성</li> </ul>	공주산성시장
백제전통시장 이야기골목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건물 임대하여 원스톱 배송센터, 키즈카페(젊은 주부유도), 주민공동체 시설 등 유치</li> </ul>	
중심가로 고도이미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의 색과 무늬를 형상화시킨 재료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li> </ul>	공주산성시장활성화 구역(중동상점가)
서민형 한옥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개 한옥 주택 디자인 협정을 바탕으로 노후 주택의 개보수 시행</li> </ul>	공주산성시장활성화 구역
청년창업공방 거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li> <li>국고개 문화거리의 빈집포·빈건물을 활용한 창업공방촌 조성</li> </ul>	공주산성시장활성화 구역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대 역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건축물 관광코스 개발</li> </ul>	

자료 :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공주시, pp.14~17, 2014.

### 3)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사업의 문제점

#### (1)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미흡

##### ① 전통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파악 미흡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정책” 만이 아닌 수 많은 다양한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 상점가 등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적 측면에서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가로 경관개선 및 광장조성, 도로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 전통시장 지원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현황만 파악하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인근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1년 단위로 경제과 및 기획실 등에서 지자체 내 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수시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② 관련조직의 통합적 운영 미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규모와 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1개 부서(일반적으로 경제과)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시설계획과 운영·관리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추진되는데, 1개 부서 1~2명의 인력으로 이를 총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관련사업에 대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은, 현실적으로 인력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전통시장 관련업무 및 관심이 관련부서에만 편중되어 있고,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효율적인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2) 시설현대화 중심의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도 개선하고,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화성, 특수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보다 문화성, 특수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전통시장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 관련사업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문화성, 특수성을 제고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과 같은 접근성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은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람들의 이용성 제고라는 측면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존의 전통시장에 새로운 이용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 보다는 기존 이용객의 이용 편리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3) 유희부지의 활용 미흡

전통시장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장소(혹은 시설)에 비해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은 평균 약 3,700㎡ 규모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실제 부지면적은 이 보다 큰 약 8,600㎡ 규모)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공간에 평균 114개의 점포(약 53개 노점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부지 규모에 비해 많은 공간이 유희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0)</sup>. 또한 114개의 점포 조차도 빈점포 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희시설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소유권, 매입비용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들의 위치, 안전성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해 재 활용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남부시장의 경우 빈점포 등을 활용한 “청년몰” 등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빈점포 재생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내부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소비계층, 이용계층을 유입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은 상업시설로서 점포와 상품을 매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시설이며, 이를 위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은

---

30) 이상준, 전통시장 현황조사표, 2012



동일한 장소(혹은 시설)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입지한 지역이나 판매 상품, 이용객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장소(혹은 시설)를 형성하고 있다. 즉 해안가에 입지한 수산물특화시장과 농촌지역에 입지한 근린형 전통시장은 요구되는 판매상품이나 시설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활성화의 방향성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의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지원 기준 자체를 “글로벌 명품시장형, 문화관광형, 골목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앙정부가 전통시장은 서로 다른 장소(혹은 시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일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특성화된 발전 전략의 마련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9개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 공주산성시장 등)이 조성·운영 중에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57개 전통시장은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차별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5) 사람을 고려하지 못한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은 상인과 소비자가 만나 서로 교류함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수 많은 활동이 다양한 장소(혹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혹은 시설)를 통해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어 왔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러한 활동과 활동을 포함하는 장소(혹은 시설)를 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올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장소(혹은 시설)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전통시장은 지역 커뮤니티거점으로서 이러한 활동이나 장소(혹은 시설)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상업적 기능만 남아서 이를 통해서만 사람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시장의 커뮤니티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상업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장소(혹은 시설)나 기능이 있어야 한다. 기존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상업시설 혹은 새로운 문화시설 등이 도입되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업시설 개선 및 확충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이러한 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과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및 특성분석

### 1)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 (1) 전통시장 유형분류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類型)이란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을 묶는 것이며, 분류(分類)란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sup>31)</sup>을 의미한다. 결국 전통시장 유형분류(類型分類)란,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전통시장을 나누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전통시장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유형 간 공통적 특징이나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일반화의 결과를 통해, 유형별 전통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시장은 입지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은 입지, 판매 상품, 소비자규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개별 전통시장 간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전통시장들은 서로 다른 장소로서 존재하게 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전통시장의 특성과 결부되어, 전통시장 간 차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전통시장은 같은 “시장”으로 분류되는 장소(혹은 시설)이지만, 실제 입지한 지역이나 판매상품,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이 서로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통시장별로 차별화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방향성 측면에서, “글로벌 명품시장형, 문화관광형,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자체를 근린상권소배시장, 지역상권식품중심시장, 광역상권대형시장, 전국상권 초대형시장, 전문시장, 정기시장 혹은 건물형, 골목형, 블록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활성화 방향의 차별화를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상점가를 근린형상점가, 지역형상점가, 광역형상점가, 초광역상점가 혹은 도심형상점가, 지구중심형상점가, 근린형상점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31) 네이버 백과사전, 2015.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분류 기준을 종합하면, 대부분 유형분류 연구에서 위치, 규모, 형태, 점포 등과 같은 물리적 기준과 기능, 판매상품, 상권범위 등 비물리적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 기준은 전통시장의 공간적·시설적 특성을 시지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위치, 규모, 형태, 점포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비물리적 기준은 상품과 판매범위, 업종형태 등과 같이 전통시장의 상업적 요소와 이를 통한 영향력의 범위, 사람의 활동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전통시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통시장의 범위(물리적 범위(입지, 위치, 규모 등), 상업적 범위(판매상품, 판매범위 등))와 관련이 있으며, 더불어 형태(물리적 형태(형태, 점포배열 등), 상업적 형태(업종형태 등))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전통시장의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구분	분류 기준		유형분류	
Proudfoot (1937)	▪ 위치, 규모, 형태	▪ 점포기능	공간	▪ 중심상업지구, 부도심상가, 간선도로변상가
			기능	▪ 근린상가, 독립상점군
Northam (1979)	▪ 위치, 점포, 배열상태	▪ 상품	공간	▪ 중심업무지구
			기능	▪ 독립상업시설, 근린상가, 커뮤니티상가, 지역상가
우시구보가즈야기 (牛窪一省, 1981)	▪ 소비자 이동 거리	▪ 상품	기능(상품)+공간	▪ 도심형상점가, 지구중심형 상점가, 근린형상점가
다나카미치오 (田中道雄, 1995)	▪ 입지	▪ 상권범위, 판매상품	기능(상품)+공간	▪ 초광역형상점가, 광역형상점가, 지역형상점가, 근린형상점가
서수정 외 4인 (2006)	▪ 주변환경, 용도지역, 상권 특성, 시장규모, 빈점포율	▪ 소유형태, 등 록유무	형태	▪ 건물형, 골목형, 블록형
			크기	▪ 대형시장
			공간+시기	▪ 구도심정기시장
김종국 (2007)	▪ 입지, 점포수, 소비자 이동 거리	▪ 업종비율 7개, 도매업, 소매업	공간+상품	▪ 근린상권소매시장, 지역상권 식품중심시장
			공간+크기	▪ 광역상권대형시장, 전국상권 초대형시장
			상품	▪ 전문시장
			시기	▪ 정기시장
이상준 (2012)	▪ 토지요소, 시설요소	▪ 사람요소, 활동요소	공간+형태	▪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가로중심형 전통시장,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자료 : 이상준,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13. 수정·보완

## (2) 전통시장 유형분류 방법

앞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유형분류 기준은 연구자 마다 인식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연구는 전통시장을 분류하는 타당한 방법론과 이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을 유형분류하는 목적은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유형분류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전통시장의 범위

전통시장은 입지(도시 혹은 농촌, 중심시가지 혹은 외곽지역 등)나 규모에 따라 전통시장의 규모와 판매상품, 점포 구성방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더불어 상품의 구성이나 판매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통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상업적 요소들은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해안가에 대부분의 수산물특화 전통시장(예, 서천특화시장 등)이 입지하고 산악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산나물 등이 중요한 판매상품(예, 정선전통시장 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입지나 규모는 사람들의 이용성 혹은 지역 커뮤니티의 규모와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다. 도시에 입지한 전통시장은 농촌에 입지한 전통시장에 비해 더 큰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반대로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 전통시장의 입지나 규모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은 커뮤니티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시설의 범위는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커뮤니티 규모를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라 소생활권형(1차 커뮤니티, 인구 1~2만명), 중생활권(2차 커뮤니티, 인구 5~10만명), 대생활권(3차 커뮤니티, 인구 20~30만명)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앞 선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의 범위를 1차 생활권(소생활권, 5천명 이하), 2차 생활권(중생활권, 5천명 ~ 1만명 이하), 3차 생활권(대생활권, 1만명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범위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한다. 이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범위가 앞 서 제시된 바와 같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구

분도 이를 따라야지만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에 맞는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형분류 1차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규모(커뮤니티 규모)를 기준으로 한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일본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다나카미치오(1995)는 상점가 범위(공간과 기능의 범위)에 따라 “초광역형상점가, 광역형상점가, 지역형상점가, 근린형상점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전통시장의 형태

전통시장의 범위(커뮤니티 범위)를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유형을 분류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규모도 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규모의 한정은 전통시장 규모를 한정하는 요소가 되고 이것은 결국, 전통시장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규모와 형태를 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규모는 결국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형태적인 측면에 의해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커뮤니티의 범위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유형분류를 위한 2차 기준은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의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형태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은 크게 가로와 점포,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되는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과 규모를 나타내게 된다. 하나의 가로와 다수의 점포로만 구성된 전통시장, 두 개의 가로와 다수의 점포로 구성된 전통시장, 하나의 광장과 점포로 구성된 전통시장 등 이들의 자유로운 조합을 통해 전통시장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공간이나 시설의 모습을 서로 상이하게 된다. 가로와 점포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가로와 점포라는 2개의 활용 가능한 공간·시설이 발생하지만, 광장만으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광장만을 활용할 수 있다. 가로와 점포, 광장으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이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간의 형태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상인과 소비자 등)들의 이용패턴도 서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점포를 가진 상인과 노점형태의 상인, 가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광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 이러한 구성 방식의 차이는 결국 전통시장 간의 차이를 형태적 차이 뿐만 아니라 향후 활성화를 위한 적용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의 구성 형태에 따라 활용가능한 공간·시설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유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노점형 시장과 장옥형 시장은 분명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유형과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2차

로는 전통시장의 형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1차 기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통시장 분류 유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수정 외 4인(2006)이 형태에 따라 건물형, 골목형, 블록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건물형 시장, 노점형 시장, 장옥형 시장, 상가주택복합형 시장”을 제안하였고, 이상준(2012)은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가로중심형 전통시장,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시장은 결국 건물중심형(상가건물형), 골목중심형(가로중심형, 상가주택복합형), 블록중심형(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노점형, 장옥형)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형분류 기준은 “건물중심형, 골목중심형, 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기본 구조로 하되 필요 시 2개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는 형태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예를 들면 건물중심형과 골목중심형이 중복된 경우는, 당초 상가주택복합형과 같이 “골목 중심 건물형 혹은 광장 중심 건물형, 블록 중심 건물형”과 같은 세부적인 유형분류 기준도 제시하도록 한다.

- 건물중심형 전통시장 : 소유권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의 형태가 1동의 건물로 구성된 형태의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형태가 하나의 골목(가로)과 주변의 점포(밀집도에 상관 없음)로 구성된 형태의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형태가 하나 이상의 골목(가로)이 중첩되어 연속되고 주변으로 점포(밀집도에 상관 없음)가 밀집되어 구성된 형태의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형태가 일정한 건물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장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갖고 상거래 행위를 영속할 수 있는 형태의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 (3)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및 특성 종합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유형분류는 1) 커뮤니티의 범위와, 2) 전통시장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들이 서로 중복된 형태로 분류한다. 유형분류를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AHP, 공간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유형분류 요소가 정량적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 ①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를 위해,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 규모와 전통시장 형태를 분석하였다.

커뮤니티규모에 따라서는 총 68개 전통시장 중 10개 전통시장이 1차 커뮤니티 범위에 포함되며, 18개는 2차 커뮤니티, 40개는 3차 커뮤니티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 형태에 따라서는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이 총 22개,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이 11개,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이 20개,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이 15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차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광장중심형과 골목중심형, 건물중심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3차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건물중심형과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규모에 따라 전통시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1차 커뮤니티는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설화(혹은 정형화)되거나 규모화된 전통시장보다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소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반면에 인구규모가 큰 3차 커뮤니티에서는 전통시장이 규모화된 블록중심형이나 상설화되는 건물중심형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0〉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종합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총합계
건물 중심형 전통 시장		4  안면도수산시장, 해미종합시장, 천일시장, (천안)중앙시장	16  (예산)상설시장, (예산)역전시장, (홍성)상설시장, 광천정기시장, (청양)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부여시장, 인삼전통시장, 인삼쇼핑센터, (금산)중부시장, 인삼국제시장, 수삼센터, 연무안심시장, 강경젓갈시장, 대산종합시장	22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총합계
골목 중심형 전통 시장			5	(천안)공설시장, 남산중앙시장,, 연산시장, 해미시장, 유구시장	6	서부시장, (부여)중앙시장, 현대상가시장, 한내시장, 성정5단지시장, 입장시장	11
광장 중심형 전통 시장	9	임천시장, 외산시장, 광시시장, 갈산정기시장, 비인시장, 한산시장, 홍산시장, 은산시장	7	삼교시장, 덕산시장, 병천시장, 고덕시장, 마전시장, 양촌시장, 웅천시장	6	예산시장, 합덕시장, 신평시장, 온양온천역풍물5일장, 성환시장	20
블록 중심형 전통 시장	1	정산정기시장	2	산성시장, 산성시장활성화구역	12	(태안)상설시장, (홍성)정기시장, 청양시장, 약초시장, 금산시장, (당진)정기시장,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서산)동부시장, 온양온천시장, (보령)중앙시장, (보령)동부시장	15
총합계	10		18		40		68

## ②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종합<sup>32)</sup>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유형분류 결과, 같은 커뮤니티 범위에 속하는 전통시장도 형태적으로 서로 다른 유형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이라도 전통시장을 구성하는 가로와 점포, 공간들의 결합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즉 같은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에 속하는 태안상설시장의 경우 주변의 광장과 연계된 형태인 반면, 논산화지중앙시장의 경우 주변으로 상점가와

32) 이상준, 전통시장 현황조사표, 2012



연계된 형태로,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형태 및 운영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유형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1동 이상의 건물과 외부 광장형태의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최근 조성된 부여시장, 서천장항전통시장이나 지속적인 보수·보완이 이루어진 금산임삼관련 전통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후된 외관과 좁은 내부공간, 빈점포 등이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외관은 1층 부분은 전면 유리로 개방형태를 나타내며, 2층 이상은 개방형 공간(금산인삼 쇼핑센터 등)이나 편복도 형태(서천특화시장 등), 중복도 형태(서산대산종합시장 등) 등 전통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형 공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점포의 규모는 평균 2.5~4평 정도의 규모로 비교적 협소한 편으로 임의로 확장(2~3개 점포 병합)하여 사용하는 전통시장도 있다. 내부가로 폭은 편복도형이나 중복도형 계획 상 평균 1.5~2.5m 규모로 2이상의 사람이 교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점포에서 내 놓은 적치물들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빈점포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예, 강경젓갈시장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나 내부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는 부착(예, 서천특화시장 홍보관)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하나의 골목(가로)와 점포로 구성된 “선형적 전통시장”으로, 점포 등으로 구성된 상가 사이의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선적 형태를 지니고 있어 전통시장 자체의 외연적 확장 보다는 내부를 중심으로 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골목을 둘러싼 건물의 형태와 규모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2층 이하의 저층형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1층 부분은 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운영되고 있지만 2층 이상의 점포는 주거나 빈점포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가로 폭은 평균 6m이하로 점포 진열선, 노점, 좌판, 아케이드 기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람들이 쉽게 교행할 수 있는 폭은 아니다. 대부분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형태는 “-자형, 「자형” 등 비교적 규칙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내부의 빈점포를 활용한 사업이나 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보다는 전통시장 규모에 맞는 소규모,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하나 이상의 골목이 중첩되어 규모화가 이루어진 전통시장으로, 중심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좌·우 혹은 아래·위의 가로로 상업시설이나 공간이 확장된 형태이다. “+자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파생형태가 있으며, 둘 이상의 출입구와 규모화된 주차장을 인근에 보유하고 있다. 내부에 점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가로, 광장, 교차점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내부가로 폭은 가로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m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아케이드가 가로를 따라 격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서산동부시장, 아산온양온천시장과 같이 골목별·블록별 판매상품 유형을 다양화·전문화시키는 업종재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의 형태가 다양하여,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지닌 시설의 도입이나 조성이 가능하다. 골목중심형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점포와 골목 이외에 광장과 교차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이나 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다. 골목중심형 전통시장과 같이 가로 주변으로 빈점포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상업가로 이면 골목을 중심으로 빈점포나 창고가 조성되어 있어, 활성화되어 있는 상점가로와 이용이 없는 가로가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복합성으로 인해 전통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다.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노점이나 장옥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정기시장 형태의 전통시장이 대부분이다. 정기적인 인구 및 상품 집중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며, 대부분 비정형적인 광장형태의 공간과 개방형 장옥 형태로 조성된다. 정기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장옥이나 광장을 중심으로 진입도로변으로 상점이 확장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일정한 시설이 없어 장옥이나 화장실, 주차장, 입간판 이외의 별도의 활성화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5일 단위로는 활성화가 되는 장소가 평소에는 방치되고 있고 특히 적치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 경관 형성이나 사람들의 이용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소결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2015년 기준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총 164,11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지원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의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의 경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21개 사업, 전통시장 인근에 커뮤니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사업당 평균 20억원~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14년 선정된 공주시와 천안시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 관련 사업 및 주변 지역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중앙부처의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업내용도 기존 시설현대화 중심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외부에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추진방향 및 사업 방향의 전환에 발맞추어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통시장에 어떤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시장 개별적으로 이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유형분류는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통시장의 범위와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시장이 입지에 영향을 받고 입지가 다시 지역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커뮤니티규모”를 고려하여, 1차 생활권(소생활권, 5천명 이하), 2차 생활권(중생활권, 5천명 ~ 1만명 이하), 3차 생활권(대생활권, 1만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가로와 점포, 공간에 따라 이용패턴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형태적 유형분류 기준을 건물중심형(상가건물형), 골목중심형(가로중심형, 상가주택복합형), 블록중심형(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노점형, 장옥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2가지 기준을 교차분석하여, 1차 커뮤니티 범위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이 많으며, 2차 커뮤니티 범주에서는 모든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3차 커뮤니티 범주에서는 건물중심형과 블록중심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 범위에 따라 전통시장의 형태 및 활성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를 고려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4장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 1. 충청남도 전통시장 내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 1)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커뮤니티시설의 범위는 “표 2-8” 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2장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활용하여, 1단계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야 할 속성에 따른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출하고, 2단계로 공무원 의식조사를 통한 도입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 1단계 적용성 검토는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갖추어야 할 속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의 전통시장 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연구는 2차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의식조사를 통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결정한다. 이 단계는 커뮤니티시설이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하다는 가설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평가결과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2단계는 적용성 검토결과를 통해 결정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선호도 빈도조사를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성 분석

###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

앞 선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공공이용 및 공공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중심시가지 인근(전통시장 인근)에 입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일부 비건축물 포함) 형태의 시설” 과 같이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을, 첫째, 공공이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시설, 둘째,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셋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 형태의 시설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들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공공이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시설 : 중소기업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가능한 시설(민간 시설 배제)이어야 하며, 주민의 공공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 둘째,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 기능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 셋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 형태의 시설 :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시설 혹은 공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4-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 및 세부기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	세부기준	
공공이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li> <li>▪ 민간이 추진하는 커뮤니티시설은 배제함(예, 술집 등)</li> </ul>	지원 체계
	▪ 주민의 공공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	범위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규모	입지
	▪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형태	기능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 형태의 시설	▪ 전통시장(혹은 중심시가지)에 입지할 수 있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공간</li> <li>▪ 프로그램은 배제하나, 프로그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은 포함시킴</li> </ul>	이용성

## (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성 분석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성 분석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시설 중 전통 시장에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평가자 개인이 평가한 결과를 점수화시키고 이를 단순 빈도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분석은 2015년 4월 24일 ~ 4월 29일(6일 간) 동안 총 7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에게는 커뮤니티시설의 시설명과 입지유형, 시설유형 등만 제시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 빈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① 연구진 평가 결과

4월 24일 ~ 4월 26일(3일 간) 동안 총 3명이 참여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에 포함되는 총 85개 시설에 대해, 평가자들이 전통시장 커뮤니티 속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35개 커뮤니티시설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에 부합되며, 세부적으로는 생활관련시설에서 교육시설(3개), 교통시설(3개), 기타공공시설(1개), 놀이휴게시설(1개), 문화시설(5개), 문화여가관련시설(1개), 복지시설(6개), 상업시설(4개), 위생시설(2개), 체육시설(1개), 행정시설(1개), 공간시설(1개), 공공보건의료시설(3개), 연구시설(1개)이 포함되고 있다.

〈표 4-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연구진 평가 결과

대유형	중유형	선정 시설명	마을	읍면	시군
생활관련시설	공간시설	공원 및 광장, 공지		○	○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기타공공시설	종합고용지원센터		○	○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도서관(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	○	○
		직업훈련시설		○	○
	교통시설	주차장	○	○	○
		버스정류장	○	○	○
		도로	○	○	○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	○	○

	문화시설	미술관		○	○
		전시관		○	○
		공공공연장	○	○	○
		정보화센터	○	○	○
		도농교류공간	○	○	○
	문화여가관련시설	지방문화원			○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	○
		종합복지관			○
		노인회관	○		
		마을회관	○	○	
		청소년회관		○	○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	○	○
		안내센터	○	○	○
		시장	○	○	○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	○	○
	위생시설	찜질방	○	○	
		건강관리실	○	○	○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
	연구시설	연구시설			○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	○

## ② 전문가 평가 결과

4월 27일 ~ 4월 29일(3일 간) 동안 총 4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연구진 평가와 같이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에 포함되는 총 85개 시설에 대해, 평가자들이 전통시장 커뮤니티 속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31개 커뮤니티시설이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시설(1개), 공간시설(1개), 공공보건의료시설(4개), 보건의료시설(1개), 공공시설(3개), 교육시설(3개), 놀이휴게시설(1개), 문화여가관련시설(1개), 상업시설(6개), 위생시설(2개), 체육시설(1개), 공간시설(1개), 교통시설(1개), 문화시설(3개), 복지시설(1개)이 포함되고 있다.

〈표 4-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대유형	중유형	선정 시설명	마을	읍면	시군
생활관련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	○	
		공원 및 광장, 공지		○	○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시설	약국		○	○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	○	○
		은행(농협, 수협 등)		○	○
		우체국		○	○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도서관(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	○	○
	교통시설	도로	○	○	○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	○	○
	문화시설	입주자집회소			○
		정보화센터	○	○	○
		도농교류공간	○	○	○
	문화여가관련시설	지방문화원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	○
	상업시설	안내센터	○	○	○
		잡화점	○	○	○
		술집		○	○
		시장	○	○	○
		산지유통센터	○	○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	○	○
	위생시설	건강관리실	○	○	○
		목욕탕(작은목욕탕)		○	○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	○

###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종합 및 우선순위 검토

####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종합

내·외부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활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선정하였다. 총 7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 중 점수 합계가 4점 이상이 커뮤니티시설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내·외부 전문가가 공통으로 선정한 커뮤니티시설도 있지만, 서로 선택하지 않은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선정결과, 총 32개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로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련시설유형(대유형)에 속하는 공공행정유형, 보건의료유형, 문화·복지유형, 교통·공간유형, 상업시설유형(중유형)의 사업들이 발굴되었다. 공공행정유형에서는



행정시설과 공공시설이 각각 1개씩, 보건의료유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이 4개, 위생시설이 3개, 문화·복지유형에서는 문화시설 4개, 복지시설 4개, 놀이휴게시설 1개, 체육시설 2개, 교육시설 3개, 교통·공간분야에서는 교통시설 3개, 공간시설 2개, 상업시설에서는 3개가 각각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선정결과를 적용범위로 살펴보면, 1차 커뮤니티 범위에서 적용가능한 시설은 총 19개 이며, 2차 커뮤니티 범위에서 적용가능한 시설은 26개 이고, 3차 커뮤니티 범위에서 적용가능한 시설은 25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선정된 커뮤니티시설 수에 비해 많은 수가 나열된 것은 적용범위에 따라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중복되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4〉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종합

대유형	중유형	선정 시설명	마을	읍면	시군
생활관련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미당	○	○	
		공원 및 광장, 공지		○	○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지료소	○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	○	○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도서관(작은도서관)			○
		주민교육시설	○	○	○
	교통시설	도로	○	○	○
		주차장	○	○	○
		버스정류장	○	○	○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	○	○
	문화시설	공공공연장	○	○	○
		정보화센터	○	○	○
		도농교류공간	○	○	○
	문화여가관련시설	지방문화원			○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이동)		○	○
		노인회관	○		
		마을회관	○	○	
	상업시설	청소녀회관		○	○
		전시 및 판매장	○	○	○
		시장	○	○	○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	○	○
	위생시설	안내센터	○	○	○
		건강관리실	○	○	○
		목욕탕(작은목욕탕)		○	○
	체육시설	찜질방	○	○	
		문화체육센터			○
		생활체육시설		○	○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	○

## (2)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우선순위 평가

내·외부 평가자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32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에 대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용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통시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30일 ~ 2015년 5월 12일(13일 간)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는 총 21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16개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 76.2%를 나타냈다. 평가방식은 공무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서 전체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중 공공공연장 조성이 가장 필요하면, 다음으로 주차장,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찜질방, 노인회관, 마을회관, 목욕탕 등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2015년 5월 13일 (1일 간) 평가에 참여한 2명의 평가자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명의 평가자 모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 첫째, 실무자 입장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했고, 둘째, 국비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했고, 셋째, 전통시장이라는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시설인지를 고려했다고 답하고 있다.

〈표 4-5〉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우선순위 평가 결과

시설명	평점	순위	시설명	평점	순위
공공공연장	4.2	1	지방문화원	2.7	17
주차장	4.1	2	방송통신시설	2.6	18
쉼터 및 마을마당	3.8	3	정보화센터	2.6	19
공원 및 광장, 공지	3.8	4	보건소	2.5	20
전시 및 판매장	3.7	5	버스정류장	2.5	21
안내센터	3.5	6	청소년회관	2.5	22
어린이놀이터	3.3	7	보건지소	2.3	23
도서관(작은도서관)	3.3	8	주민자치센터	2.2	24
영유아보육시설	3.2	9	보건의료원	2.2	25
도농교류공간	3.2	10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2.2	26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3.2	11	보건진료소	2.1	27
건강관리실	3.1	12	경로당(노인정)	2.1	28
문화체육센터	3.0	13	목욕탕(작은목욕탕)	2.0	29
주민교육시설	3.0	14	노인회관	2.0	30
생활체육시설	2.9	15	마을회관	2.0	31
도로	2.9	16	찜질방	1.8	32

#### 4) 소결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커뮤니티시설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통시장이라는 특정 장소(혹은 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커뮤니티시설에 비해 범위와 유형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이 갖고 있는 속성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 등 2차 평가를 통해 1개 대유형, 5개 중유형, 11개 소유형에 속하는 총 31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출하였으며,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6〉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공공행정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보건의원,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의원
	위생시설		목욕탕(작은목욕탕), 찜질방, 건강관리실	목욕탕(작은목욕탕), 찜질방, 건강관리실
문화·복지	문화시설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지방문화원, 공공공연장,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지방문화원, 공공공연장, 도농교류공간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마을회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교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주민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주민교육시설
교통·공간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공원 및 광장, 공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안내센터

## 2.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충청남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은,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검토, 2) 전통시장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도출,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제시로 도출한다.

첫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검토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과 관련하여 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설치기준을 분석하고 전통시장 내 적용성을 검토한다. 둘째, 전통시장 유형별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도출은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분류하는 것으로, 현황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한다. 셋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별 적용기준 제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몇 개의 형태로 구분(예, 건물형, 점포형, 가로형, 광장형 등)하고 형태별 대표 유형을 1~2개 정도 도출하여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검토

####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최소 설치기준 검토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과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최소 기준을 분석하여, 실제 전통시장 내 적용 시 기준으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커뮤니티시설별로 최소 설치기준이 상이하고, 일부는 전통시장 내부에 적용이 가능한 규모이지만, 일부는 별도의 시설로만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최소 설치기준

커뮤니티시설			기본시설	면적기준	비고
생활 관련 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 규정 없음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공원 및 광장, 공지	소공원	■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 1,500㎡ 이상	
			근린공원	■ 10,000㎡~ 1,000,000㎡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도농복합시형 : 진료실, 사무실 등	■ 10,000㎡~ 100,000㎡ ■ 약 2,433㎡	■ 보건복지부, 201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

커뮤니티시설		기본시설	면적기준	비고
	보건의료원	군형 : 진료실, 사무실 등 진료실, 사무실, 병동 등	■ 약 2,122㎡ ■ 약 3,246㎡	내, 2013, pp. 169-205
	보건지소	통합 : 진료실, 사무실 등 일반 : 진료실, 사무실 등	■ 626㎡ ~ 746㎡ ■ 262㎡ ~ 396㎡	
	보건진료소	진료실, 숙소 등	■ 60㎡ ~ 149㎡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집중구내통신실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시설기준 준용	■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10.2㎡ 이상(1개소) ■ 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5.4㎡ 이상(1개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도서관(작은 도서관)	서가, 안내대, 사물함 등	■ 교사 200㎡(40명 기준) ■ 체육장 160㎡(40명 기준)	김포교육지원청,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2015, <a href="http://www.gpoe.kr">http://www.gpoe.kr</a>
	주민교육시설	교육장	■ 약 33㎡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교통시설	도로		■ 규정 없음 ■ 최소 12㎡ 이상(사례) ■ 상황에 따라 변동	
	주차장		■ 시설면적 200㎡ 당 1대(시설면적/20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버스정류장		■ 폭 2.25m 이상 ■ 길이 15m-90m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 2012, pp.1009-1014
놀이휴게 시설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설치공간, 휴게공간, 수벽경계 등	■ 약 200㎡(200세대 기준)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문화시설	공공공연장	객석, 무대	■ 등록 50㎡ 이상 ■ 미등록 50㎡ 이내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3항5호,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정보화센터	컴퓨터실, 교육실 등	■ 규정 없음 ■ 약 20㎡ 이상(소규모 교육 가능 규모-사례)	
	도농교류공간	다목적실, 방문자라운지 등	■ 255㎡~440㎡	조원석 외 1명, 동천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센터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13권 제2호 통권 41호, 2011.5, p.36
문화여가 관련시설	지방문화원	사무실, 화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 330㎡ 이상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다목적실, 교육 및 공동활동 공간, 남녀 분리	■ 40㎡ ~ 300㎡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관 : 강당, 의무실, 휴게실, 직업재활실 등	■ 1,000㎡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법제처, 2015,

커뮤니티시설		기본시설	면적기준	비고
	이동	노인복지관 : 사무소, 식당, 조리실, 상담실, 면화실, 집회실, 강당, 화장실, 물리치료실 등	500㎡ 이상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장혜원 외 1명, 노인복지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통권 제53집), 2009.10, p.76.
		청소년수련관 : 특별활동실,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등	2,000㎡ 내외(300명 기준)	문화체육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기준 및 모형개발 연구, 1993, pp.51-68.
		청소년수련실 : 다목적홀, 취미방, 소모임실, 공부방 등	200㎡(60명 기준)	
		이동복지관 : 학습지원실, 사무실, 창고, 커뮤니티실, 회의실 등	■ 규정 없음 ■ 250㎡ 이상	중계본동 지역이동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기준 2015.
	노인회관	마을회의실, 경로당 등	100㎡~264㎡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안
	마을회관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 특별활동실,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등	2,000㎡ 내외(300명 기준)	문화체육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기준 및 모형개발 연구, 1993, pp.51-68.
		청소년수련실 : 다목적홀, 취미방, 소모임실, 공부방 등	200㎡(60명 기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 규정 없음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공동작업실, 전시실 등	■ 규정 없음	
	안내센터		■ 규정 없음	
위생시설	건강관리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료실, 사무실 등	■ 99㎡ ~ 825㎡	
	목욕탕(작은 목욕탕)	목욕장, 탈의실 등	■ 제약없음 ■ 전복의 경우 130㎡ 내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방안, 2014.
	찜질방	목욕장, 탈의실 등	■ 제약없음 ■ 전복의 경우 130㎡ 내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방안, 2014.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주민공동체공간, 주민자율공간, 공동체 사물함, 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 약 200㎡ 내외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 북, 2014, p. 43
		주민공동체공간, 주민자율공간, 공동체 사물함, 화장실, 사무실, 창고, 다목적홀(150㎡ 이상) 등	■ 약 500㎡ ~ 1,000㎡이내	
		주민공동체공간, 주민자율공간, 공동체 사물함, 화장실, 사무실, 창고, 다목적홀, 공연장 등	■ 약 1,000㎡ 이상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면적 규정 없음 ■ 운동시설 규모에 따라 규모 차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2015,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 1,000㎡ 내외	업무시설의 법적 분류 기준

(2) 입지 및 형태를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검토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관련 설치 최소 기준을 활용하여, 시설의 입지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입지는 전통시장 내부와 외부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형태는 건물형과 비건물형, 다시 건물형은 빈점포를 활용한 개선형과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신축형으로 제시하였다.

공간시설, 교통시설은 대부분 비건물형태로 조성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시설과 복지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등은 신축형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조성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4-8〉 입지 및 형태를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

커뮤니티시설			입지		형태		
			내부	인근	건물형		비건물형
					개선형	신축형	
생활 관련 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	○			○
		공원 및 광장, 공지	○	○			○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		○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	○	
		도서관(작은도서관)	○		○	○	
		주민교육시설	○		○	○	
	교통시설	도로	○	○			○
		주차장	○	○			○
		버스정류장		○			○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	○	○		○
		공공공연장	○	○			○
	문화시설	정보화센터	○		○		
		도농교류공간	○		○		
	문화여가관련시설	지방문화원		○		○	
		경로당(노인정)	○		○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			○	
		노인회관		○	○		
		마을회관	○		○		
		청소년회관	○		○	○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	○	○		○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	○	○	○	
		안내센터	○	○	○	○	
	위생시설	건강관리실	○		○		
		목욕탕(작은목욕탕)	○	○		○	
	체육시설	찜질방					
		문화체육센터	○	○		○	
		생활체육시설	○	○			○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	○		○	

## 2) 전통시장 유형별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범위와 형태에 따라 유형화를 하였다.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범위에 따른 유형은 ‘표 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커뮤니티범위에 따라 적용가능한 유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 형태는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물중심형, 골목중심형, 블록중심형, 광장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 범위에 따라서는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 형태(전통시장 유형)에 따라서만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유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유형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 (1) 건물중심형 전통시장

#### ① 현황 및 문제점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1동 이상의 건물과 외부 공간(광장 혹은 주차장)을 보유한 현대적 개념의 “마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마트와 같은 개방형 내부공간을 지니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전통시장은 개별점포들이 연속된 폐쇄형 내부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개방형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1층공간만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상업 외 시설로 임대·활용되고 있다. 좁은 내부공간과 복도, 낙후된 시설, 부족한 상업시설로 인해 내부공간의 활용성이 미흡한 편이며, 외부도 주차장 이외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빈점포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입지적으로 지역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한정된 건물 공간만을 활용하고 외부공간이 주차장으로 기 조성·운영되고 있어 공간의 활용성이 높지 않으며, 전통적 상업기능이 아닌 음식판매점 중심의 근린상가 형태로 운영되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한정된 건물 내 빈점포 및 옥상 공간, 외부 주차장 등을 활용한 소규모



모 커뮤니티시설·공간의 도입이나 전통시장의 전문화를 위한 상업시설, 혹은 전혀 새로운 기능·공간의 도입을 통한 재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빈점포를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통한 기능의 전환, 혹은 전문 상업시설의 도입을 통한 전문시장으로의 조성방안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공간이 한정되고 소규모라는 점, 반면에 사람들의 이용성이나 접근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1~2개 혹은 그 이상의 빈점포 혹은 2층 유희점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시설의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기능 강화, 1층 점포의 재구조화를 통한 전문시장으로의 변모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공간을 활용한 이용객을 위한 지원공간의 조성도 필요하다. 다른 유형의 전통시장들과 달리 점포 이외에 활용가능한 외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이나 주차장 등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옥상 부분을 활용하여 이용객의 모임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의 도입이 가능하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간 역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면 사람들의 휴식이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③ 적용가능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평가를 활용하여 앞 서 제시한 현황과 적용방안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협의·평가결과,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활용가능한 시설이 점포와 일부 외부공간(옥상과 주차장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의 기능을 커뮤니티형으로 개편하거나 전문화된 상업시설로서의 입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표 4-9〉 건물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공공행정	행정시설										내부
											외부
	공공시설							방송통신 시설			내부
											외부
보건의	공공보건										내부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료	의료시설										외부
	위생시설				건강관리 실			건강관리 실			내부
											외부
문화· 복지	문화시설	정보화센 터, 도농교류 공간			정보화센 터, 도농교류 공간			도농교류 공간			내부
							공공공연 장			공공공연 장	외부
	복지시설				청산회 관			청산회 관			내부
											외부
	놀이휴게 시설						어린이놀 이터			어린이놀 이터	내부
											외부
	체육시설							생활체육 시설			내부
				생활체육 시설			생활체육 시설				외부
	교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영유아보 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주민교육 시설			영유아보 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주민교육 시설			내부
											외부
교통· 공간	교통시설										내부
											외부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내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내부
											외부

## (2)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 ① 현황 및 문제점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자형” 가로 패턴과 비교적 규칙적이고 집단화된 점포들로 구성된 형태이다. 가로의 폭이 비교적 협소한 편이며 하나의 구간만 운영되고 있어 가로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이나 공간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점포의 경우 2층 이하의 저층형 건물에 평균 1~2개 점포가 1층에 형성되어 있으며, 2층은 대부분 빈점포로 방치되거나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 1층에 형성된 점포 중에서도 빈점포가 존재하며, 상업가로 배후로도 창고 등으로 활용한 점포 등이 입지하고 있다.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이용자의 규모나 이용률이 미흡하여 활성화 수준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자체의 상업적 기능이 취약한 면이 있어, 먼저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의 상업적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가로와 빈점포를 활용한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빈점포의 경우, 1층과 2층의 활용성을 구분하여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 가로를 중심으로 소규모 커뮤니티공간이나 시설의 도입, 2) 빈점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 및 시설·공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가로를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은 소규모, 연계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가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자체를 활용한 개선 방안으로 도로에 대한 포장, 점포 전면부 및 점포 사이공간 활용 자투리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점포를 활용한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은 부족한 시설·공간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로중심형 전통시장은 가로 뿐만 아니라 점포 수에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층과 2층 점포를 구분하여 각 층별로 적용 방안을 차별화해야 한다. 먼저 1층의 경우 주변 상업시설들과 연속성을 고려한 상업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다. 혹은 상인들의 단합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2층의 경우 주변과의 관계보다는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성, 새로운 기능의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교육시설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 ③ 적용가능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평가를 활용하여 앞 서 제시한 현황과 적용방안 등을 토대로, 전통 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협의·평가결과,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시설·공간의 한계성, 상업적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시설의 도입이 아닌, 커뮤니티유형별로 약 4-5개 정도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이 제시되었다.

〈표 4-10〉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공공행정	행정시설										내부
									주민자치센터		외부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내부
											외부
보건의료	공공보건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내부
									보건소		외부
	위생시설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내부
						목욕탕(작은목욕탕)			목욕탕(작은목욕탕)		외부
문화·복지	문화시설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도농교류공간			내부
										공공공연장	외부
	복지시설								청년회관		내부
									노인회관		외부
	놀이휴게 시설							어린이놀이터			내부
										어린이놀이터	외부
	체육시설										내부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외부
	교육시설				주민교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주민교육			내부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시설			
교통·공간	교통시설			도로			도로			도로	외부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도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내부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외부
										공원 및 광장, 공지	내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전시 및 판매장, 안내센터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외부
										전시 및 판매장	내부

### (3)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 ① 현황 및 문제점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자형 혹은 □자형”으로 중첩된 가로와 이들을 둘러싼 점포들로 이루어진 규모화된 전통시장이다. 둘 이상의 출입구와 내부의 활용가능한 많은 공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리된 가로 환경을 나타낸다. 가로 폭도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에 비해 평균적으로 넓은 편으로 가로를 활용한 소규모 활동 전개가 가능하다. 점포는 골목중심형과 마찬가지로 1층부를 제외하고 상업적 이용이 부족한 편이지만, 반면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많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외부와 내부, 가로와 가로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교차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심상업가로 이면 골목으로도 방치된 가로와 점포, 공간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중심시가지 내에 입지하고 있어 건물중심형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용 및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상업적으로는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골목별, 블록별로 업종을 분리하는 업종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비교적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전통시장으로 이용자 규모나 이용률도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좋은 편이다. 이로 인해 상업시설의 입지나 운영이 비교적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보다 쾌적한 상업환경 조성, 지역적 차원에서 이용편리와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능·공간·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다른 유형에 비해 활용가능한 시설과 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가로는 중심상업가로와 외부 접근로, 이면 골목 등이 있으며, 점포도 1층과 2층 혹은 중심상업가로변 점포와 외부 상점가 점포, 이면 골목 점포 등이 있다. 유희부지도 진입로와 교차로, 이면 부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활성화,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의 다양한 조성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가로를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은 공간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쉼터와 휴식공간, 공연공간, 전시공간 등의 다각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골목별·블록별 가로의 변화도 필요하며, 이를 통한 전통시장 전체의 재구조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심상업가로와 외부 접근로는 상업활동의 전문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개선을 도입하고, 이면 골목은 사람들의 휴식이나 소규모 공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둘째, 점포를 활용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며, 특히 농특산품 판매장, 로컬푸드 매장, 핵점포 등 새로운 상업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면 골목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새로운 이용계층 확대를 위한 특화공간(민예 및 공예품 공동제작실, 전시장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의 적극적인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이면 골목 점포나 2층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대규모의 커뮤니티시설(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도입을 통한 상시적 이용자 유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③ 적용가능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평가를 활용하여 앞 서 제시한 현황과 적용방안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협의·평가결과,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의 활용가능한 유희시설·공간, 입지적 장점 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중심형 전통시장과 다른 의미와 규모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내부 유희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커뮤니티유형별로 약 10~12개 정도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기준이 제시되었다.

〈표 4-11〉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공공행 정	행정시설					주민자치 센터			주민자치 센터		내부
								방송통신 시설			외부
	공공시설										내부
											외부
보건·의 료	공공보건 의료시설	보건진료 소				보건지소					내부
									보건소		외부
	위생시설				간강관리 실	목욕탕(작 은목욕탕), 찜질방			목욕탕(작 은목욕탕), 찜질방		내부
											외부
문화· 복지	문화시설	정보화센 터, 도농교류 공간			정보화센 터, 도농교류 공간		공공공연 장	도농교류 공간		공공공연 장	내부
						지방문화 원			지방문화 원		외부
	복지시설	경로당(노 인정), 마을회관, 청소년회 관	사회복지 시설(장애 인, 청소년, 노인, 아동)		마을회관, 청소년회 관	사회복지 시설(장애 인, 청소년, 노인, 아동)		마을회관, 청소년회 관	사회복지 시설(장애 인, 청소년, 노인, 아동)		내부
											외부
	놀이휴게 시설			어린이놀 이터			어린이놀 이터			어린이놀 이터	내부
											외부
	체육시설			생활체육 시설		문화체육 센터	생활체육 시설		문화체육 센터	생활체육 시설	내부
											외부
	교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영유아보 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주민교육 시설			영유아보 육시설, 도서관(작 은도서관), 주민교육 시설			내부
											외부
교통·	교통시설			도로			도로			도로	내부
				도로			도로			도로	외부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공간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내부
											외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전시 및 판매장,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 실, 안내센터		전시 및 판매장	내부
											외부

#### (4)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 ① 현황 및 문제점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주거 건물에 위요된 형태로, 정형화되지 못한 일정한 장소(혹은 가로)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으로, 특성 상 고정적인 시설·공간의 구성에 한계가 있다. 결국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장소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소 활용도 전문성보다는 복합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과거 “장터”로서의 향수를 지닌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기능을 변화(주말장, 새벽장 등)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상시적인 사람들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공간(주차장 겸 이벤트 공간 등)의 조성, 부족한 시설의 신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형 공간에서 사람들이 휴식과 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조성도 필요하다.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활성화 수준이나 시설수준이 다른 유형의 전통시장에 비해 낮은 편이다.(물론 5일장 시에는 상설시장보다 활성화된다.) 특히 정기적 운영으로 인해 고정시설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상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시설·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 ②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응방안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부지는 넓지만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조차도 점포 형태가 아닌 장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공간적으로는 활용성이 높지만, 시설적으로는 활용성이 낮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나 이용객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상업활동 시 휴식과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넓은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공간의 도입도 필요하다. 즉 넓은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공간(이벤트 광장, 휴식공간 등)의 조성이 필요하며, 정형화되지 못한 부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커뮤니티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전통시장(아산온양온천역풍물5일장, 당진합덕시장 등)을 제외하고 이용객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적 이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공간의 조성(1차 커뮤니티-경로당 등, 2차 커뮤니티-사회복지시설, 3차 커뮤니티-영유아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

## ③ 적용가능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평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평가를 활용하여 앞 서 제시한 현황과 적응방안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협의·평가결과,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지와 장옥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공간(주차장, 휴식공간 등)의 조성이나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의 신축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4-12〉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선정 결과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공공행정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내부
											외부
	공공시설										내부
											외부
보건료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지소			보건소		내부
											외부

구분		1차커뮤니티(소생활권)			2차커뮤니티(중생활권)			3차커뮤니티(대생활권)			입지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개선	신축	비건물	
	위생시설					목욕탕(작은목욕탕), 찜질방			목욕탕(작은목욕탕), 찜질방		내부
											외부
문화·복지	문화시설						공공공연장		도농교류공간	공공공연장	내부
									지병문화원		외부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노인회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아동, 노인회관)		내부
											외부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내부
											외부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내부
											외부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주민교육시설		내부
											외부
교통·공간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내부
				도로, 버스정류장			도로, 버스정류장			도로, 버스정류장	외부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마당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쉼터 및 마을마당, 공원 및 광장, 공지	내부
											외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전시 및 판매장			전시 및 판매장	내부
											외부

### 3)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형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시장 내 공간(혹은 시설)의 “배치 형태”에 따라 적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전통시장 내부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은 토지와 가로, 점포(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혹은 가로)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지닌 전통시장 범위 내 야외 공간이나 가로공간, 건물 상부공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혹은 시설)은 전통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며, 이들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시설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즉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독립적으로 배치(일원배치)’ 할 것인지, 혹은 ‘분산할 것인지(분산배치)’에 따라 개발에 의한 전통시장 내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내 공간(혹은 시설)을 활용한 “개발형태”에 따라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시장 내 공간(혹은 시설)은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여 적용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개발형태에 따라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앞 선연구를 통해 “개선행, 신축형, 비건물형” 등 몇 개의 개발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방안을 토지와 점포의 조성형태보다는 이들을 활용한 “개발형태”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개발형태는 건물형(개선행과 신축형), 비건물형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유형별 세부유형을 별도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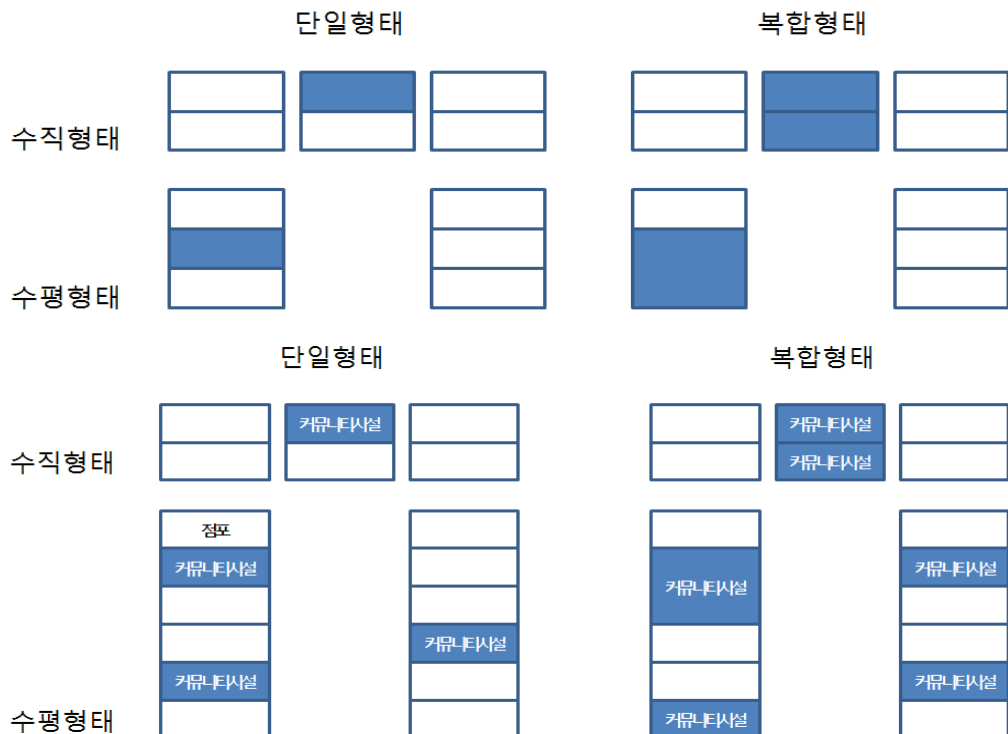
#### (1) 배치형태에 따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에 배치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을 융복합하여 거점성이 강한 공간(혹은 시설)을 조성하는 ‘일원배치’ 형태와 둘 이상의 시설을 여러 공간에 분산배치하여 전통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분산배치’ 형태이다.

일원배치형태는 건물중심형 전통시장과 같이 활용가능한 부지 혹은 점포가 적거나 블록중심형 전통시장·광장중심형 전통시장과 같이 활용가능한 부지 혹은 점포가 넓은 전통시장 모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1층 혹은 2층 이상에 위치한 하나의 공간(혹은 시설)을 활용하여 하

나의 기능을 도입하는 형태(예,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등)나 둘 이상의 기능을 도입하는 형태(예, 안동구시장 고객센터 등)로 조성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화하는 경우는 건물의 수평적 확장보다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조성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활용시설은 기존 빈점포 등 점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식과 점포 옥상과 같은 면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입지적으로는 활용가능한 부지나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 내부 혹은 외부 모두 가능하다.

분산배치형태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기능을 전통시장 내부의 둘 이상의 공간(혹은 시설)에 조성하여 상호 간 연계·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부에 빈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시설의 건립보다는 필요한 소규모 시설의 다수 건립이 필요한 전통시장에서 추진이 용이하다. 전통시장 내부로의 수평적 확장을 통해 다양한 공간(혹은 시설)을 도입하며, 단순한 상업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소규모 시설(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을 도입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테마, 예를들면 청년창업, 청년예술인 등을 활용한 테마거리화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림 4-1〉 배치형태에 따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2) 개발형태에 따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건물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기존 점포를 개선하여 조성하는 ‘개선형’과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신축형’, 광장이나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한 ‘비건물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선형의 경우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설규모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단위시설 중심으로 조성해야 하며, 신축형은 개선형에 비해 공간·시설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비건물형은 건물을 건립하지 않기에 비교적 대규모의 외부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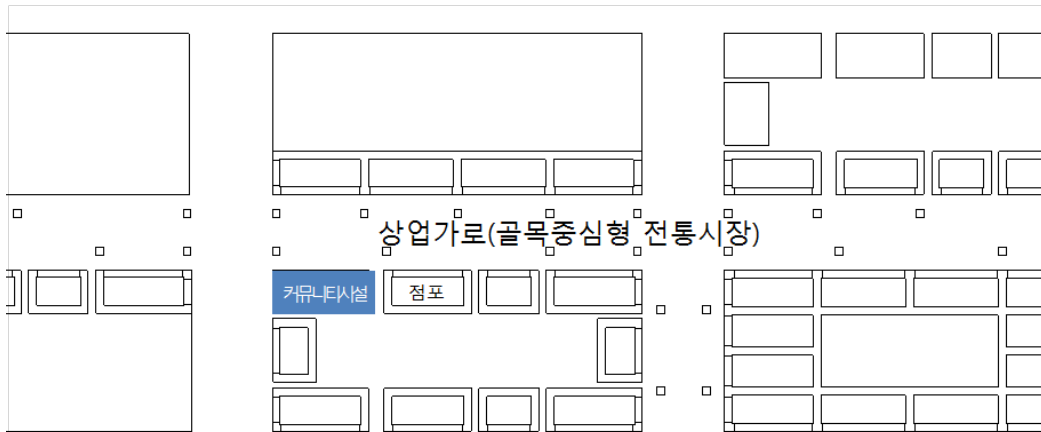
### ① 개선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개선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전통시장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능한 공간이 점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이나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혹은 1차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기존 빈점포 및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필요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다.

하나의 빈점포 혹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는 소규모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거나 여러개의 빈점포 혹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분산배치하는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 빈점포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예, 전시 및 판매장)이나 복지시설(경로당, 청소년회관 등), 문화시설(정보화센터, 도농교류공간 등), 교육시설(작은도서관 등) 등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이 가능한 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다. 위치는 기존 사업시설과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시설은 가급적 1층에 배치하며, 이용자의 편의나 독립적 공간 활용이 필요한(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은 점포 2층 빈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이나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도입의 위치는 내부공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현황 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과 시설의 도입에 적합하며, 보령중앙시장 머드향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핵점포의 유치나 전주남부시장 청년몰과 같이 특정 기능(예술 혹은 창업 등)을 갖춘 테마거리 형태로의 조성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층 활용 사례(제천덕산전통시장)  
출처 : 투데이제천단양, 2010



2층 활용 사례(춘천낭만시장)  
출처 : 동그라미재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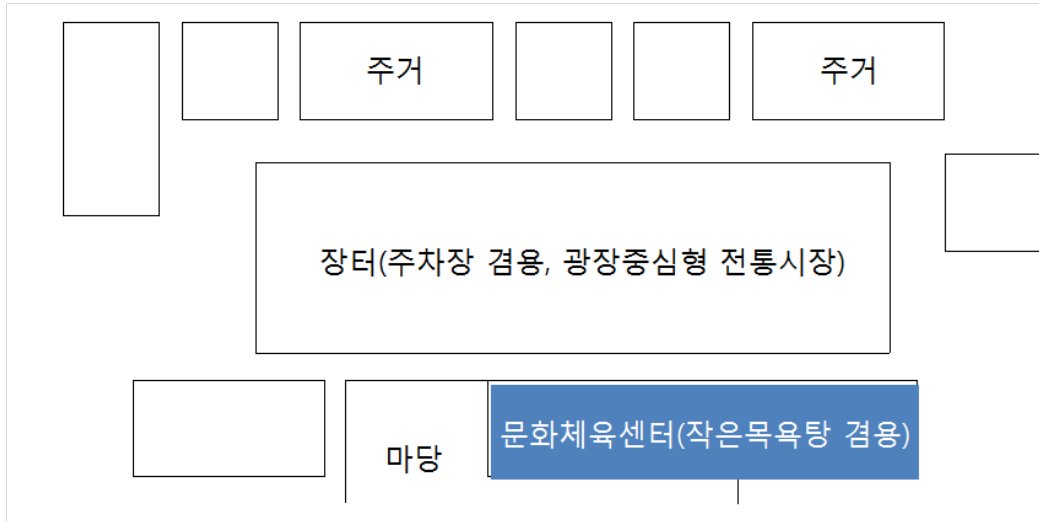
〈그림 4-2〉 개선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② 신축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신축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가능한 공간(혹은 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이나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혹은 2차 커뮤니티 이상의 전통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필요시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추진한다.

기존 점포 및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신축 방식으로 필요한 규모와 형태의 새로운 공간(혹은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혹은 시설)이 요구되는 문화체육센터, 목욕탕,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등을 전통시장 내부 혹은 외부 공간에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이나 효율성, 기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분산배치 보다는 집중화·복합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존 상업시설과의 기능적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을 통한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을 도입한다. 공주산성시장과 같은 주차장과 상인교육장, 안내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시설의 조성이나 부산 서동전통시장 서동에 술창작공간 등과 같은 거점공간의 조성이 가능하다.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카페신축(서울신영시장) 광장중심형 전통시장 문화시설 신축(화개장터)  
출처 : 시사경제신문, 2015. 출처 : 강경원의여행만들기, 2015.

〈그림 4-3〉 신축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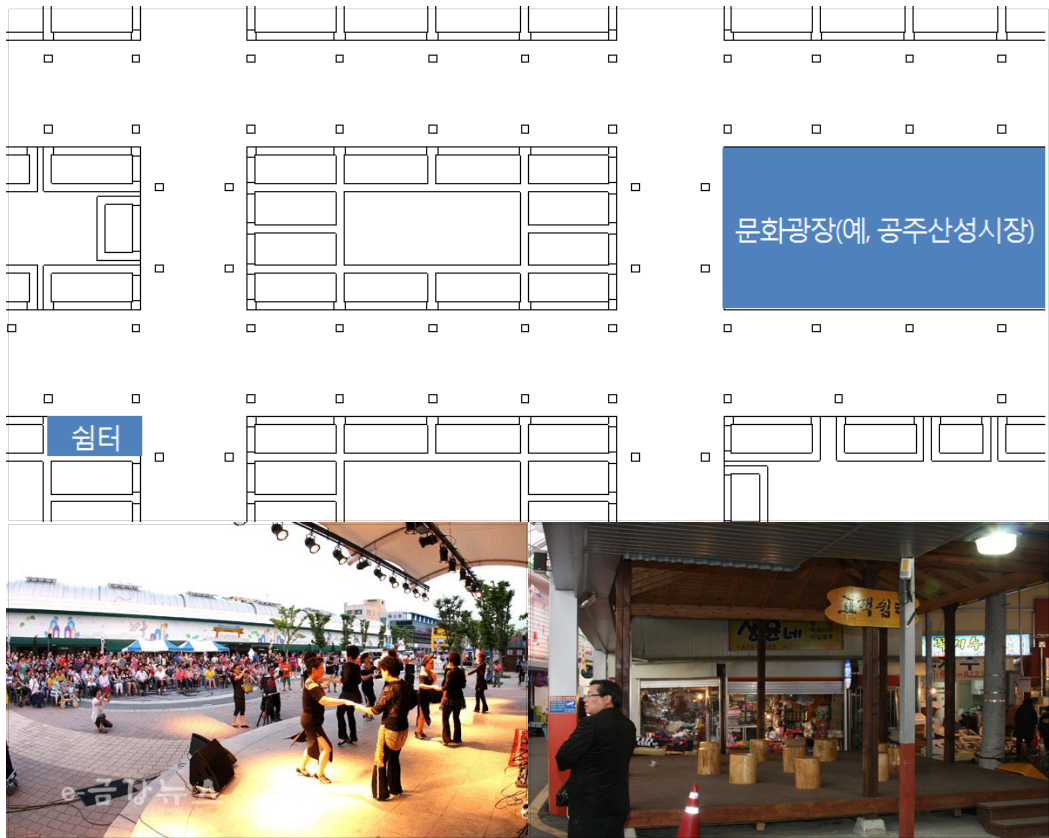
### ③ 비건물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비건물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기존 점포를 활용한 건물형 전통시장과는 달리 전통시장 내·외부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보조하는 공간이나 주민들의 문화·여가 선용

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조성방식에 있어서는 공주산성시장 문화광장과 같이 전통시장 외부의 대규모 부지(기존 점포 철거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거나 혹은 태안서부시장과 같이 전통시장 내부 가로 교차점을 활용한 쉼터, 벤치 설치, 아산온양온천전통시장과 같이 전통시장 진입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휴식공간 설치, 보령웅천전통시장과 같이 외부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내 다양한 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이 가능하여 단독거점형으로 조성하거나 분산배치형으로 조성할 수 있다. 건물형에 비해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성이나 시지각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문화광장 조성 사례(공주산성시장)

출처 : 금강뉴스, 2014

소규모 쉼터 조성 사례(태안서부시장)

출처 : 거제인터넷신문, 2013

〈그림 4-4〉 비건물형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 4)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

전통시장 활성화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다양한 시설·공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추진이 대부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타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중앙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중앙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적 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융복합적 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지원이 가능한 중앙부처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등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한 공모제 형태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 지침에서도 지원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 지침에서도 지원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통시장 내부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도시 및 중심시가지 규모가 협소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전통시장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부지 확보 및

이용수요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 확보 및 이용수요 확보가 용이한 전통시장 내부로 유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소규모 시설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 등도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이 가능하다. 실제 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례조사에서와 같이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전통시장의 경우, 보건소가 전통시장에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상호 간의 상생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표 4-13〉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방안

커뮤니티시설		중기청	농식품부	국토부	기타
생활 관련 시설	공간시설	쉼터 및 마을미당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공원 및 광장, 공지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보건지소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지원사업		도시재생
	교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도시재생
		도서관(작은도서관)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주민교육시설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교통시설	도로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주차장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버스정류장		농촌중심지	
	놀이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문화시설	공공공연장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정보화센터		농촌중심지	
		도농교류공간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문화여가관련시설	지방문화원			문체부
	복지시설	경로당(노인정)		공동생활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청소년, 노인, 이등)			보건복지부
		노인회관		공동생활홈	보건복지부
		마을회관		공동생활홈	보건복지부
		청소년회관		농촌중심지	문체부
	상업시설	전시 및 판매장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민예 및 공예품 등 공동제작실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안내센터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위생시설	건강관리실		농촌중심지	보건복지부
		목욕탕(작은목욕탕)		공모사업	
		찜질방		공모사업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생활체육시설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행정시설	주민자치센터			행정부

## (2)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 방안

### ① 지자체 단위의 전통시장 통합관리체계 확립

현재 전통시장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뿐만아니라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라는 한정된 장소(혹은 시설)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간 통합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한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T/F팀”의 구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통합 T/F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전통시장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참여하는 전담기구 성격으로 활용한다. 또한 중심시까지 내 도로 개설, 주차장 개설 등이 추진될 경우 통합 T/F팀이 참여하여 전통시장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정기모임과 수시모임(관련사업 추진 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전통시장 관련 적용가능한 사업 발굴·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만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활용하여 다른 중앙부처 지원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부처협업사업 예시(2014)’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체육진흥시설지원(문화체육관광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산림청), 복합환승센터 개발(국토교통부), 청소년시설확충(여성가족부) 등과 연계·협업이 가능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즉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만이 아닌 지자체 자체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연계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 및 전통시

장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충북발전연구원, 2015)” 과 같이 전통시장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표 4-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 내 부처협업사업(예시)

부처	사업명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확충지원
	체육진흥시설지원	▪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
문화재청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지역문화유산,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자연휴양림, 도시숲, 생태숲 지원 등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공동 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지원	▪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복합환승센터 개발	▪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 향상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품격향상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확충	▪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자료 :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014, p.28.

### ③ 전통시장 관련 역량강화사업 추진

전통시장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된 중앙부처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전통시장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상인 혹은 주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상인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 내용이 중소기업청과 관련한 상업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사업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칭”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도입 방안” 과 같은 설명회, 정책 및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충남형 상인대학 커리큘럼” 등을 확립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방식도 1회성 교육이 아닌 수시교육, 시장별 교육이 아닌 지역 단위 교육으로 확대하는 등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내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출하고 이들을 전통시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실제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전통시장에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 등을 통해 종합한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개념 및 속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 전통시장 내 입지가능 시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내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로 행정시설(1개), 공간시설(1개), 공공보건의료시설(4개), 보건의료시설(1개), 공공시설(3개), 교육시설(3개), 놀이휴게시설(1개), 문화여가관련시설(1개), 상업시설(6개), 위생시설(2개), 체육시설(1개), 공간시설(1개), 교통시설(1개), 문화시설(3개), 복지시설(1개) 등 31개가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앞서 도출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과 적용방안 등을 종합하여, 실제 전통시장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출하였다. 건물중심형 전통시장은 한정된 내부공간(1~2개의 빈점포 혹은 2층 유희점포 등)과 외부 주차공간 등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가로와 빈점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부 가로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통한 소규모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가로와 점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화적 혜택 향상, 상업적 특화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혹은 시설)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기존 장터나 유희공간을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 및 부족한 시설의 신축, 새로운 기능 시설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은 배치형태 및 개발형태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치형태에 따라서는 일원배치와 분산배치 형태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일원배치는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여 하나의 기능을 도입하거나 수직적으로 둘 이상의 기능을 도입하는 형태로 조성 가능하다. 분산배치형태는 둘 이상의 기능을 둘 이상의 공간에 배치하는 형태로 전통시장에 대한 수평적 확장을 전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발형태에 따라서는 건물을 중심으로 개선형과 신축형, 비건물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선형은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방식이며, 신축형은 전통시장 내 유희부지 및 빈점포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비건물형은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시장 주변 유희부지를 활용한 광장이나 쉼터 등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넷째,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실제 전통시장 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조성과 관련한 법·제도 검토를 통해 최소 설치 기준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전통시장 내 입지와 형태 방향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정책 및 지원사업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관련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T/F팀” 구성 등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알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가칭)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도입 방안”과 같은 설명회, 정책 및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충남형 상인대학 커리큘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커뮤니티시설이 전통시장 내에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커뮤니티시설만이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은 분명 필요하지만, 전통시장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은 전통시장 내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이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 요약 및 결론

전통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 간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전하는 장소(혹은 시설)이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행위의 장이 아닌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 상인역량강화, 장소성·문화성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전통시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역 활성화거점으로 인식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전통시장의 내부 문제해결을 통해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대상인 지역주민이 아닌 상인 중심의 사업구조, 상업시설 중심의 시설·공간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자발적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내부를 벗어나 지역차원에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잠재적 소비계층(지역주민 등)의 “피동적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입지나 상권 등에 따라 서

로 다른 장소(혹은 시설)이다. 서로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요구하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면, 전통시장 유형분류의 기준은 크게 전통시장 범위(물리적 범위, 상업적 범위 등)와 형태(물리적 형태, 상업적 형태 등)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범위와 형태를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유형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유형(건물중심형 전통시장, 골목중심형 전통시장, 블록중심형 전통시장,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충청남도 6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유형분류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도출하였으며, 유형별로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속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 전통시장 내 입지가능 시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혹은 비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커뮤니티시설 중 전통시장의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즉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총 31개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행정시설(1개), 공간시설(1개), 공공보건의료시설(4개), 보건의료시설(1개), 공공시설(3개), 교육시설(3개), 놀이휴게시설(1개), 문화여가관련시설(1개), 상업시설(6개), 위생시설(2개), 체육시설(1개), 공간시설(1개), 교통시설(1개), 문화시설(3개), 복지시설(1개))을 도출하였다.

셋째,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최소설치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유형별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앞 서 제시한 4개 유형의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중심형 전통시장과 골목중심형 전통시장은 소규모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부 공간(혹은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중심형 전통시장은 특성 상 활용가능한 공간(혹은 시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중심의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장중심형 전통시장은 기존 장터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상업기능의 강화 및 새로운 기능·공간으로 재생을 위한 복합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가능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전통시장 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배치형태 및 개발형태에 따라 전통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배치형태를 기준으로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여 하나의 기능을 도입하거나 수직적으로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화하는 형태의 일원배치형태와 둘 이상의 기능을 둘 이상의 공간에 배치(수평적·수직적)하는 형태의 분산배치형태가 있다. 개발형태에 따라서는 기존 점포를 활용하거나 신축을 통해 건물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개선형과 신축형이 있으며, 광장, 교차로 등 노지를 활용한 비건물형의 개발형태로 나누어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기준과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은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을 전통시장 내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화 및 지자체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정책제언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 통합관리체계 확립

#### (1)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관리기구 구성·운영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을 고려하면서도 충청남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관리기구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간 지원조직’ 성격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담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조사·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며, 이에 기초한 전통시장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및 실태, 상인 등 역량강화 현황, 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형 전통시장(혹은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은 1) 도 단위 센터 설립(충청남도 보조금 등을 활용한 별도 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방식), 2) 위탁방식(지역 대학 및 연구원 등과의 장기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등 수행 위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 중 충청남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운영예산은 충청남도 보조금을 기본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중 일부분을 출연금(혹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에 상응하는 지자체별 연구과제 수행 등)받아 확보한다.

## (2)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단 구성·운영

전통시장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충청남도 전통시장 전문가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한정된 인력풀조차 현재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간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활동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별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활용은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의 인력 풀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인력 풀이 기초하여 충청남도 정책자문단과 같은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류활동과 회의, 지자체 요구 시 전문가 지원 등 다각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 중장기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자체별 전통시장 활성화 T/F팀 구성·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이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경제관련 부서”에서 중소기업청 정책 및 지원사업만을 대응하고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통합적이고 규모화된 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T/F팀’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통합 T/F팀은 경제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관련된 부서가 연계된 형태로 구성한다. 이들의 역할은 전통시장이 포함된 사업의 추진 시 경제관련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형태로 운영한다.

매달 정기적인 운영(회의 혹은 서면 교류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결과를 충청남도 등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4) 충청남도 전통시장 연구활동 정례화

충청남도 전통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전문가들을 활용한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한국전통시장학회’, ‘전통시장 연구회(충남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논문발표 혹은 연구회 개최 등)하고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한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이들이 상호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 혹은 한국전통시장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연구회(토론회 등)를 개최하여 전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발표대회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 혹은 한국전통시장학회 간 정례회의 등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 2)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 (1)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 활성화 연구

충청남도 전통시장 연구는 지자체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전통시장 활성화가 충청남도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부족한 실정이다. 충청남도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지자체별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유형화 연구, 소비계층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 및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전통5일장 특성화 방안 연구, 전통시장과 순환형 경제시스템 융복합 연구 등 충청남도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시행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별 물리적·비물리적 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자료로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의 기준이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조사하는 내용의 양도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전통시장(혹은 상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태 파악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5~10개 정도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실제 조사원 등을 활용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점포수나 아케이드 설치 현황, 내부 시설 구성 현황 등과 더불어 가로 폭이나 점포의 건립년도 및 현황, 전체 규모, 외부 형태 등, 비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판매상품, 업종, 매출액, 유동인구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자료와 실제 매장 구성 현황, 상인의 정확한 현황, 연령층, 판매상품의 유통 및 판매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전통시장별 구체적이 자료의 확보는 결국 전통시장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가능한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충청남도 전통시장의 융복합화 방안 모색

전통시장은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농수산품을 핵심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이지만 전통시장에서 파머스마켓이나 로컬푸드 등 순환형 경제시스템과의 접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 농협이나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를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나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나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전통시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농특산물판매센터, 로컬푸드센터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접목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과 유통 뿐만 아니라 인력, 조직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해당 전통시장에서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계획 수립을 지자체 혹은 전통시장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제 1~2개 전통시장에서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선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3) 충청남도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중앙정부 지원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하고, 충청남도 지자체 중 전통시장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여러 지자체가 있으나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례의 내용이 전통시장의 정의와 범위, 사육료 징수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판단에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장 내 시설·공간의 활용, 상인의 참여 및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전문화, 실제 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융복합화 등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별 특성화, 전문화, 융복합화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관련 연구, 전통시장 관련 기구 설립·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지자체 보조금 등)을 활용한 지자체별 전통시장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4) 전통시장에 대한 새로운 소비계층 확대방안 모색

##### (1) 새로운 목적계층의 발굴 및 유입전략 마련

전통시장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전통시장 가는 날 등)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피동적 이용을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지역 단체나 기관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일부 전통시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 유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생은 지역에서 10~30%의 인구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상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소비계층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등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예, 전통시장 대상 백일장, 학생 대상 음악회, 학생 대상 할인행사, 학생 전용 공간 조성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용이 활발한 주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예, 주부교실 이전·운영, 주부 사랑방·모임방 제공, 주부교실 할인행사 등)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계층에 맞는 유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이 현재는 거의 대부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향후 충청남도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

양정부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교육부 평생교육 및 학교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예산의 확보 및 연계 활용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2) 커뮤니티 거점 조성 강화

지역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공공시설)의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중심시가지의 재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커뮤니티시설(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전통시장을 검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은 대부분이 공설시장으로 부지의 활용성이 높고 입지적으로도 중심시가지에 입지하여 접근성이나 향후 활용성이 높다. 이러한 커뮤니티시설(공공시설)이 새로운 소비계층의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전통시장 관련 부서가 참여한 T/F팀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혹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 혹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우선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5)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한 중앙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

### (1) 적용가능한 중앙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일부분의 사업의 경우 실제 전통시장에 적용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소기업청 지원사업만이 아닌, 이러한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사업들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향후 지자체별로 전통시장에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래 제시된 표는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에 적용가능하거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는 정책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정책 및 지원사업이 전통시장을 대상지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시장 범위 내에 시설의 도입 등에 대한 제약도 없으며, 실제 일부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을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다.

〈표 5-1〉 ‘15년 기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용가능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안)

소관 부처	사 업 명	회계	신청 방법	‘15년 추진내역	‘16년 사업추진시기		국비 보조율 (%)
					공모 (신청) 시기	선정 시기	
교육부	지역평생 교육활성화 지원	일반	공모	135개지자체	‘16. 1	‘16. 3	50-67
문체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특	일반	14개	‘ 15.5	‘ 15.9	40
문체부	생활문화 센터조성	일반	공모	30개 내외			30
문체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문예	공모	30개 내외			100
문체부	작은도서관조성 지원	일반	공모	33개			50-70
문체부	작은영화관조성지원	지특	일반	9개	‘ 15.5	‘ 15.9	50
문체부	체육진흥시설지원	지특	일반	248개	‘ 15.5	‘ 15.9	30
문체부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지특	일반	6개	‘ 15.5	‘ 15.9	50
농림부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	농특	공모	71개소	미정	미정	50
농림부	로컬푸드직매장설치지원	농안	공모	35	미정	미정	30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	공모	1,516지구(신규415)	‘15.1	‘15. 4	70
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일반	일반	국공립 150개소 장애전문 2개소	‘15. 3	‘15. 10	50
환경부	자연생태공간조성(생태놀이터)	지특	공모	계속0, 신규20	‘ 15.5	‘ 15.9	30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일반	공모	10개 사업	‘ 15.11	‘ 16.1	정액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일반	일반	13곳	‘ 15.3	‘ 15.5	50-60
여성부	청소년시설확충사업	지특	일반	108			70~88
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소진	공모	87개(신규 32개)			50
지역위	창조지역사업	지특	공모	21 개소	‘15. 5	‘15. 5-6월	50-80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지역행복생활권관련 부처사업, 2014, pp. 2~10.

## (2) 문체부 지원사업 적용방안(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앞 서 제시된 다양한 중앙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혹은 지자체 내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제 추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한 작은도서관 및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사업, 교육부에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교육역량 및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작은 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대상지에 대한 제약이 없고 사람들의 유동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 등에서 전통시장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근본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년 간 약 30개 정도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휴공간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경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당해연도 12월 경에 대상 지자체 또는 관련단체 등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1개소 당 약 7천 ~ 1억원 정도를 지원하며, 지방비의 30~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경제과 및 관련부서(문화과 혹은 교육과 등) 간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당해연도 9월 경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내 적용 대상지의 도출, 적용규모 및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이 높은 편으로, 지금까지 면 단위 마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지역 내 중심시가지(전통시장)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2〉 ‘15년 기준 전통시장 대상 작은도서관(문체부) 공모사업 추진 방안(안)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사업대상지 발굴	▷ 조성계획 통보 및 공모	▷ 사업신청 (제안서 및 계획서 제출)	▷ 선정·지원
‘15.8	‘15.10	‘15.11	‘15.12
T/F팀 구성(경제과 및 관련부서 협력) : 사업대상지 발굴	공모 제안서(계획서) 작성(외부 전문기관) 충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협조 요청 지자체 경제과 및 관련부서 협력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전통시장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장소(혹은 시설)이라는 전제에서,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변화 필요성에 맞추어 충청남도 및 지자체에서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충청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가 충청남도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구의 내용상 전통시장의 유형화,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도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의 적용방안 등 개별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내용의 구체성이나 전통시장별 적용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도출된 전통시장 유형별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보다 세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의 완결성이나 행정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용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별로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주도의 전통시장 커뮤니티시설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을 소유권에 따라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설시장은 공공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점에서 커뮤니티시설의 도입 가능성이 양호하지만, 사설시장은 공공의 영향력이 미치기 쉽지 않은 전통시장이다. 따라서 연구의 수행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소유권에 따라 전통시장별 커뮤니티시설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지역의 중심에 입지하고 많은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충청남도는 대부분 소도시 규모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

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는 사례가 부족하다. 실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무엇보다 전통시장이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물리적·비물리적 현황과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한 통합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은 지자체 주도하에 중앙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전통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중앙부처의 정책 및 지원사업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혹은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통합적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전통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중앙부처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충청남도 전통시장별 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은 서로 다른 장소(혹은 시설)로서 활성화 방안 역시 다르다. 그러나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대해 이러한 다름에 기초한 개별적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지자체에서 개별 전통시장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합된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특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생특성 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장소(혹은 시설)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현대적 유통업태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기능이 전통시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피동적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하나일 뿐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강규, 2001,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선·이규천, 2012, 농촌 공공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군수 외, 1998, 경기도 전통시장의 합리적 재개발방안과 모형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찬동, 2005,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공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공주시, 2014.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朝鮮總督府令, 2012, <http://contents.archives.go.kr>
- 국토연구원, 2003, 소도시활성화를 통한 국토정주체계 구축방안, 영천시.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 농어촌공사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전수조사」, 2012.
- 박재현·황민영·신주영, 2007,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 변필성, 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 송미령·박시현, 2001, 농촌 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천식, 2001, 전통시장 실태와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산업경제연구원
- 유주희, 2008,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옥, 1994, 한국재래시장의 변천과 유통근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준 외 2인, 2010,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3호
- \_\_\_\_\_, 2012, 지방중소도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순재·임승빈·오휘영, 1996. 농촌마을 공동시설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2(2)

중소기업청, 2015,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천안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충남연구원 소도시연구회 발표자료,  
201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2002~201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년도별 지원내  
역, 2015, 내부자료  
한국도시지리학회, 2008, 지방도시 경쟁력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방안 구축, 국토해양부  
네이버 지식백과, 2015, <http://terms.naver.com>  
위키 백과사전, 2015, <http://ko.wikipedia.org/wiki>.  
법제처, 2015, <http://www.law.go.kr>.  
시군 2013년 통계연보, 2015.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상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임형빈 책임연구원  
연구자문 및 ·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신동호 연구위원  
류태창 디자인융합팀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류재승 생활경제팀장(충청남도 경제산업실)  
심재승 대표(공주 부자떡집)

전략연구 2015-09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커뮤니티시설 적용 방안 연구

글쓴이 · 이상준 · 임형빈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8월 31일 / 발행 · 2015년 8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41(지역도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